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행정학 석사학위논문

사회자본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김혜선

사회자본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김 순 은

이 논문을 행정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0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김 혜 선

김혜선의 행정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12월

위 원 장 _____ 구 민 교 (인)

부 위 원 장 _____ 박 순 애 (인)

위 원 _____ 김 순 은 (인)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외국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다문화 사회로의 진전이라는 정책 환경 변화 속에서 다문화 수용성의 증가를 위한 사회자본의 역할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하였다. 사회자본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2011 서울서베이」를 활용하였다. 사회 자본을 신뢰, 호혜성의 규범, 교량형 연결망, 결속형 연결망으로 다문화 수용성을 사회적 거리감, 다문화 정책 필요성, 인지된 위협으로 구성하여 그 관계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회자본의 기능이 내집단의 경계를 넘어 외집단의 구성원인 외국인을 인식함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을지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자본 중 신뢰, 호혜성의 규범 그리고 연결망 중 교량형 연결망은 긍정적 영향을, 연결망 중 결속형 연결망은 다문화 수용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가설을 설정하였다.

기초 통계 분석 결과, 서울의 사회 자본은 매우 낮은 수치로 나타났으며, 다문화 수용성은 보통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Putnam이 제시한 모델 중 사회 자본은 낮고, 다문화 수용성은 비교적 높은 ‘개인주의적 사회’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대체적으로 여성일수록, 연령이 어릴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다음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사회자본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신뢰, 호혜성의 규범, 교량형 연결망은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공공기관 신뢰, 결속형 연결망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사회신뢰의 사회 접촉제 기능이 같은 배경을 중심으로 한 내집단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집단을 수용함에 있어서도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사회를 신뢰할수록 외국인에 대해 자유롭게 교류하고자 하며 다문화 사회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둘째, 타인을 위한 호혜적 행위는 다문화를 수용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호혜성의 규범을 자원봉사의 참여 정도로 측정하였는데 공공의 문제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 학습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리라 예측할 수 있다. 셋째, 이질적이고 다양한 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타인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으며, 타 집단과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외국인 집단과의 관계를 허용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결속형 연결망은 집단 내부의 결속력을 중시하고 외부 집단에게 배타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외국인 집단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주요어 : 사회 자본, 다문화 수용성, 신뢰, 호혜성의 규범, 연결망,
사회적 거리감

학 번 : 2012-21928

<목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3
1. 연구의 대상과 범위	3
2. 연구의 방법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4
제 1 절 이론적 검토	4
1. 사회 자본의 개념적 논의	4
1) 사회 자본의 개괄적 논의	4
2) 사회 자본의 구성요소	7
(1) 신뢰	7
(2) 호혜성의 규범	8
(3) 연결망	9
2. 다문화의 개념적 논의	10
1) 다문화와 사회적관용에 대한 논의	10
2) 다문화 수용성의 개념	11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3
1. 사회 자본에 관한 연구	13
1) 사회 자본에 관한 연구	13
2) 사회 자본의 구성요소	14
2.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	15
1) 다문화 수용성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15
2) 선행연구의 다문화 수용성의 지표	17
3. 사회 자본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20

1) 사회 자본과 사회적 관용에 관한 연구	20
2) 사회 자본의 각 구성요소가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22
(1) 신뢰	22
(2) 호혜성의 규범	25
(3) 연결망	26
4. 선행연구의 의의 및 한계	28

제 3 장 연구 설계 및 분석방법 **31**

제 1 절 연구 분석 모형	31
제 2 절 연구의 가설	32
1. 신뢰와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	32
2. 호혜성의 규범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	33
3. 교량형 연결망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	33
4. 결속형 연결망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	34
제 3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	35
1. 종속변수: 다문화 수용성	35
1) 사회적 거리감	35
2) 다문화 정책 필요성	36
3) 인지된 위협	37
2. 독립변수: 사회 자본	37
1) 신뢰	37
2) 호혜성의 규범	38
3) 결속형 연결망	38
4) 교량형 연결망	39
3. 통제변수	39
1) 성별	41
2) 연령	41
3) 소득	42
4) 학력	42

5) 지역	43
제 4 절 설문구성	46
제 5 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47
1. 자료수집	47
2. 분석방법	48
제 4 장 분석 결과	48
제 1 절 인구통계학적 특성	48
제 2 절 변수의 기초 통계량	50
제 3 절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변수 차이	53
1. 성별에 따른 변수 차이	53
2. 연령에 따른 변수 차이	54
3. 소득에 따른 변수 차이	55
4. 학력에 따른 변수 차이	57
5. 지역에 따른 변수 차이	59
제 4 절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61
제 5 절 가설검증	62
1. 사회자본과 다문화 수용성 종합지수의 관계	62
2. 사회자본과 사회적 거리감의 관계	64
3. 사회자본과 다문화정책 필요성의 관계	66
1) 사회자본과 다문화정책 필요성의 관계	66
2) 사회자본과 외국인 이민정책 필요성의 관계	67
3) 사회자본과 결혼 이주자 사회편견 해소 정책 필요성의 관계 ..	69
4. 사회자본과 인지된 위협의 관계	70
5. 종합적 논의	73
제 5 장 결론	76
제 1 절 연구 요약 및 의의	76
1. 연구의 요약	76

2. 연구의 의의	79
제 2 절 연구 한계 및 앞으로의 연구 방향	80
<참고문헌>	81
Abstract	91

<표 목차>

<표 1> EBS의 다문화 수용성 지표	12
<표 2> 사회 자본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14
<표 3> 다문화 수용성의 영향요인과 관련한 학자들의 견해 요약	16
<표 4> 다문화 수용성 측정 개념들	18
<표 5> 사회 자본과 관용; 4가지 유형의 사회	20
<표 6> 결속형 연결망과 교량형 연결망의 차별적인 효과	26
<표 7> 선행연구의 다문화 수용성 영향요인	40
<표 8> 변수의 조작적 정의	45
<표 9> 통제변수의 측정	45
<표 10> 설문문항	46
<표 11>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49
<표 12> 사회 자본 기초분석	50
<표 13> 다문화 수용성 기초분석	51
<표 14> 인구학적 특성의 기술통계량	52
<표 15> 성별에 따른 변수 차이	53
<표 16> 연령에 따른 변수 차이	54
<표 17> 소득에 따른 변수 차이	56
<표 18> 학력에 따른 변수의 차이	58
<표 19> 지역에 따른 변수의 차이	60
<표 20> 변수 간 상관관계	61
<표 21> 사회자본과 다문화 수용성 종합지수의 관계	64

<표 22> 사회자본과 사회적 거리감의 관계	65
<표 23> 사회자본과 다문화정책 필요성의 관계	66
<표 24> 사회자본과 외국인 이민정책 필요성의 관계	68
<표 25> 사회자본과 결혼 이주자 사회편견 해소정책 필요성의 관계 ..	70
<표 26> 사회자본과 인지된 위협의 관계	72
<표 27> 회귀분석의 종합적인 결과	73
<표 28> 가설 검정	74

<그림 목차>

<그림 1> 사회 자본과 시민적 관용의 관계	22
<그림 2> 본 연구의 분석틀	31
<그림 3> 서울시의 외국인 분포	44
<그림 4> ‘사회 자본과 관용; 4가지 유형의 사회’에 적용	52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2013 안전행정통계연보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인구는 1,445,63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013.1.1). 이는 두 해 전 수치인 1,265,006명에 비교하여 180,625명, 약 14%정도 증가한 수치이다(2011 안전행정통계연보). 이러한 통계 결과는 우리나라의 외국인의 인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가 세계화를 맞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음을 보여준다.

유네스코에서는 이러한 세계의 흐름을 맞이하여 2001년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을 채택하였다. 그 내용은 자연에서 종의 다양성이 보존되어야 하듯이 인류에 있어서도 다양한 문화가 정체성을 가지고 보존되어야 하며 그 토대위에서 자유로운 상호작용이 이루어져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오랜 기간 단일민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다소 미진한 적응을 하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다. 현재의 상황을 한국사회의 새로운 발판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위기관리의 측면으로 봐야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홍기원, 2009). 다문화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평가되었던 외국에서조차 다문화현상이 사회갈등으로 이어지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현상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되었으며 이에 어떻게 대응하여 새로운 발전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지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단일민족이라는 패러다임이 존재하다, 2000년대 이후 1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민족을 아우르는 국가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큰 배를 돌리기 위해서 큰 각도의 회전이 필요하듯이, 급격한 담론의 교체

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서는 강압적인 정책 시행보다는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들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를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¹⁾.

한편 사회 자본은 Putnam(1993)의 연구 이래 사회문제의 해결 기제로서 큰 주목을 받아왔다. 사회 자본은 사회의 행위자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시민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 신뢰, 호혜성의 규범 등을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사회 자본은 지역사회 내의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의 능력을 제고 시키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박희봉 외1, 2000).

사회적 자본이 정부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고(정광호, 2010), 정부가 모든 일에 나서지 않더라도 주민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문제 해결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기능을 현 다문화 상황에 적용하여 보았을 때,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음을 밝혀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인 신뢰, 호혜성의 규범, 교량형 연계망과 결속형 연계망이 다문화 수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서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 자본이 요구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즉 사회자본의 긍정적 기제가 내집단의 경계를 넘어 타 집단인 외국인을 수용함에 있어서도 적용되어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사회자본의 부정적 기제가 외국인을 수용함에 있어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1) 현재 다문화 정책은 이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과 다른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이끄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문화 정책의 모델은 차별 배제모형, 동화모형, 다문화주의 모형으로 구분되어 왔다(Castles & Millers, 1998).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1.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연구는 ‘2011년 서울 서베이’를 통해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서울시는 일본 모리기념재단에서 발표한 ‘2013년 세계 도시 국제경쟁평가(GPCI)’에서 40개의 비교 대상 도시 중 2년 연속으로 6위를 차지하여 세계 도시로서의 진면모를 인정받고 있다²⁾. 이는 외국인 인구로도 증명될 수 있는데, 2012년 말 서울시 외국인 거주 인구는 24만 7108명으로 서울 총 인구의 2.4%를 차지하고 있다(등록 외국인 기준). 전국 외국인 등록 인구는 1,445,103명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약 17%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e-나라지표). 국적별로 보면 중국 18만44명(72.9%), 일본 8,961명(3.6%), 미국 8,061명(3.3%), 베트남 6,912명(2.8%) 순으로 중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서울통계연보). 게다가 지방의 경우에는 외국인 중 결혼 이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나, 서울의 경우 다양한 출신 지역과 여러 직업군을 가진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구 별로 독특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어 여러 측면의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원숙연, 2011). 또한 사회 자본의 작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 자본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에서 자주 연구대상으로 선정되고 있다.

사용된 자료는 서울 서베이의 2011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한 달 동안 조사되었으며 서울시 거주 가구, 15세 이상 가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가구방문을 통한 면접조사로 진행되었다. 모집단은 주민등록과 과세 대장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조사되었다. 층화2단 집락추출법을 통해 표본이 추출되었으며 표본의 크기는 45,605명이다.

2) “서울 도시경쟁력 세계 6위”, 매일경제, 2013.10.30:28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문헌 연구 방법과 통계분석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우선 문헌연구 방법을 통해 사회적 자본과 다문화 수용성의 개념과 정의 등을 살펴본다. 그 후 선행연구를 통해 사회적 자본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의 이론적 체계를 도출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을 위해서 2011년도 ‘서울 서베이’의 통계 자료 등을 사용한다. 다문화 수용성의 영향요인을 연구한 선행논문들을 통해 도출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 종속변수의 기초 분석을 진행한다. 이는 집단의 특성과 변수간의 관계를 도출하기 위해서다. 이 때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상관관계분석을 통하여 사회 자본과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가설을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의 회귀계수의 유의미성을 검정하고자 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이론적 검토

1. 사회 자본의 개념적 논의

1) 사회 자본의 개괄적 논의

비슷한 상황, 비슷한 투입 하에서도 발전의 속도가 큰 차이를 보이는 지역이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Putnam(1993)은 이탈리아의 북부와 남부의 발전 차이의 이유를 사회적 자본으로 설명하였고, 이후로 사회적 자본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에 앞서 사회 자본을 체계화된 개념으로 만들고 대중화한 것은 Bourdieu와 Coleman에 의해서다. Bourdieu(1985)는 자본이 세 가지의

형태를 가지며 그것이 바로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이라고 설명한다. Bourdieu는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에서 사회 자본을 정리한 학자로 볼 수 있다. 축적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사회 자본과 문화 자본이 경제적 자본으로 은밀하게 재생산되는 것을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보았다. 그는 사회 자본을 “지속적인 네트워크 혹은 상호면식이나 인정이 제도화된 관계 즉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획득되는 실제적인 혹은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으로 정의했다. 즉 믿을만하다는 인정을 받으며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 되어 그 집단의 자원을 제공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자본의 양은 속해 있는 집단의 결속력을 토대로 발생하며, 연결망의 크기 그리고 각 연결망이 소유하고 있는 자본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

또 다른 사회자본의 뿌리는 Coleman에 의해 만들어졌다. Coleman(1988)은 사회 자본을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구성되며, 주어진 구조에 속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촉진한다”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사회자본의 형태를 “사회적 환경 속의 신뢰성에 기반하여 존재하는 의무와 기대, 사회구조의 정보유통 능력, 그리고 효과적인 제재를 동반하는 규범”으로 보았다. Coleman은 사회 자본을 개인의 차원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개인이 사회 자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측면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사회자본이 사회구조 내에서 구성되는 만큼, 외부효과를 지니게 되고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Putnam(1993)은 사회 자본을 “연결망, 규범, 그리고 신뢰와 같이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과 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사회조직의 특성”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이탈리아 칼라브리아, 시실리와 같은 남부 지역과 에밀리아 로마냐, 투스카니와 같은 북부지역의 통치의 질의 차이가 바로 사회자본으로부터 도출된다고 주장하였다. 시민 공동체의 역사와 유산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시민 참여(civic engagement)가 훌륭한 정부와 경제적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경로로서 시민 참여 등의 전통은 집합 문제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여 집합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하게 한다

고 보았다.

이와 같은 Putnam의 사회 자본에 대한 실증적 연구와 학자들의 사회 자본에 대한 정의를 계기로 사회 자본에 대한 매우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사회 자본에 대해서 학자마다 연구 초점에 따라 조금씩 다른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았을 때 공통적으로 “사회 내의 행위자들 간에 존재하며, 공동의 목표 달성을 촉진하는 자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 자본은 개인적 측면과 집단적 측면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을 이 두 측면 중 어떠한 측면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사회 자본의 이익이 개인에게 귀속되는가 혹은 집단에 귀속되는가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다. 전자는 개인이 도구적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회 네트워크에 내재된 자원을 어떻게 접촉하고 사용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즉 개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관계에 투자를 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그 속에 내재된 자원을 이끌어 내는가에 대해 연구한다.

후자는 특정 집단이 어떻게 사회 자본을 공공자원으로 발전시키며, 이를 통해 집단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다(Nan lin, 1999). 즉 집단적 측면의 분석의 경우 사회 자본은 공공 자원 즉 공적이익에 관해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된다. Putnam(2001)은 사회 자본을 집단적 차원으로 볼 때 발생할 수 있는 외부효과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 역시 교통법규를 잘 지킬 것이라는 사람의 신뢰는 더 나아가 다수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게 하는 원천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사회 자본은 사적재인 동시에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사회 자본을 개념적으로 정서적 연결망과 사회적 연결망으로 나누는 학자도 존재한다(최종렬, 2008). 다음 장에서 후술할 사회 자본의 구성요소 중에서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을 정서적 연결망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연결망을 사회적 연결망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전자는 사회자본 요소 중에서도 인식적 측면이 강조되며, 후자는 구조적 측면이 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자본의 긍정적 기제로서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 큰 주목을 받아왔다. 공공재를 생산하기 위한 집단 행동에서는 개별이익이 작거나 없고, 무임승차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사회 자본의 핵심인 호혜성이 이 집단행동의 딜레마 현상의 발생 가능성을 낮춰 준다는 것이다. 여기서 호혜성이란 한정적이지 않고 포괄적이고 일반화된 호혜성(generalized trust)을 의미한다. 즉 다른 사회 행위자들 역시도 협력적인 행위에 응답하여 호혜적인 행위를 할 것이라는 믿음이 제도적으로 형성되면서 무임승차의 가능성을 낮춰주고 공익을 위해서 행동하도록,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한다는 것이다(Boix, Pasner, 1998).

반면 최근에는 사회 자본의 부정적 기제에 대해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박우순(2004)는 사회 자본의 연구가 지나치게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사회 자본이 외부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 집단 구성원에 대한 구속, 개인 자유의 제약, 규범의 하향평준화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2) 사회 자본의 구성요소

사회 자본의 구성요소에 있어서도 학자들마다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고 있으나 대체로 신뢰, 호혜성의 규범, 연결망이 강조되고 있다(장석준, 2012).

(1) 신뢰

사회 자본의 구성요소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지만 그 중에서도 신뢰는 사회 자본의 핵심 구성요소로 뽑히고 있는데, Coleman(1998)은 신뢰를 사회 자본의 핵심 성분으로 정의하였고 Uslaner(1999) 역시 사회 자본이 가치체계 즉 사회적 신뢰를 주로 반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사회 자본의 핵심 요소로 신뢰를 꼽은 바 있다.

국내에서는 Fukuyama(1995)가 한국을 ‘저신뢰사회’로 꼽으면서 큰 주목을 받아왔다. 박찬웅(1999:39)은 “한 행위자가 위협에도 불구하고 다른 행위자가 자신의 기대 혹은 이해에 맞도록 행동할 것이라는 주관적 기대”로 신뢰를 정의하였다.

신뢰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광범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신뢰, 보편적 신뢰 혹은 가족, 친구, 동료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신뢰(사적 신뢰)로 구분하여 분석되기도 한다(Uslaner, 2002). 행정학계에서는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로서 신뢰를 분석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회신뢰(대인신뢰)와 정부 혹은 기관 신뢰로 나누어 분석하는 경우가 다수이다(박희봉 외, 2000; 도수관 2012; 이숙중 외 2008; 전성훈, 2010).

(2) 호혜성의 규범

사회 자본에 관한 연구에서 규범은 대체적으로 호혜성의 규범(norm of generalized reciprocity)으로 간주되어 도덕적 의무감과 같이 여겨지고 있다. 지금 당장의 보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보답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타인을 위해 무언가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대가 체계적으로 사회적으로 구축되면서 호혜성이 구축되는 것이다. 여기서 호혜성이란 한정적이지 않고 포괄적이고 일반화된 호혜성(generalized trust)을 의미한다. 즉 다른 사회 행위자들 역시도 협력적인 행위에 응답하여 호혜적인 행위를 할 것이라는 믿음이 제도적으로 형성되면서 무임승차의 가능성을 낮춰주고 공익을 위해서 행동하도록,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한다는 것이다(Boix & Pasner, 1998).

(3) 연결망

사회 자본의 실증적 연구를 촉발시킨 Putnam(2001)은 사회 자본 이론의 핵심을 사회적 네트워크로 보았다. 한 개인에게 사회 네트워크가 물적·인적 자본만큼이나 중요한 자본이 될 수 있으며, 시민적 품성이 상호호혜적인 사회관계가 촘촘한 네트워크에 자리 잡았을 때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회 자본과 연결망이론을 연계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Nan(1999) 역시 사회 자본이 사회 네트워크에 내재되어 있는 자원에 의해 점유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연결망을 그 특성에 따라 구분 지으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먼저 약한 연결망과 강한 연결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Granovetter(1973)는 기존의 존재하던 강한 연결망의 장점에 대한 인식, 즉 내집단을 결속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강한 연결망이 약한 연결망에 비해 긍정적이라는 사고를 뒤집고 약한 연결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에는 사회 자본의 구성요소 중 연결망에 초점을 두어 연결망을 교량형(bridging)과 결속형(bonding)으로 나눈 연구들도 등장하고 있다

두 개념을 나누게 된 배경은 사회 자본이 과연 긍정적이기만 한 기제인가에 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Olson, 1982; Bourdieu; 1985; Coleman, 1988; 박우순, 2004). Putnam이 사회적 자본의 집단적 차원으로 볼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 자본의 외부효과가 과연 긍정적이기만 한 것인가에 관한 문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Portes(1998)는 강하게 결속된 집합은 그 구성원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외부인에게는 집합으로의 진입을 제한하고 혜택을 제공하기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두 연결망을 나누는 기준은 집단들 간의 상호 연결성의 정도, 집단내의 사회 경제적 동질성의 정도 등이 사용되고 있다(장석준, 2012). 이정주(2008)는 전자를 “강력한 공동체 내부의 연계를 통해서 집단의 정체성과 공동의 목표를 강조”하는 네트워크, 후자를 “공유 목표가 서로 상이한 공동체 간의 수평적 관계”로 정의 내린다. Coffe & Geys(2007)는 결

속형 연결망은 동질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한 조직 등 닫힌 네트워크(closed network)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교량형 연결망은 다른 사회 영역에 존재하는 사람들 간의 연합으로 볼 수 있으며 교차적(cross-cutting) 혹은 포괄적(overlapping) 네트워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정의 내렸다.

어떤 연결망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데 더 유리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사회적 자본이 누구에게 공유 되는가의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이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극대화 시키는 의미인지 혹은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의미인지에 따라 결과는 다를 것이다.

2. 다문화의 개념적 논의

1) 다문화와 사회적관용에 대한 논의

다문화(multiculture)는 말 그대로 다양한 문화, 즉 '여러 나라의 생활 양식'이라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다문화주의 이념은 1970년대에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 전면적으로 등장했다. 국내에서는 1980년대 말 이후 외국인 노동 이주자와 결혼 이주 여성 그리고 유학자 수가 대폭으로 증가하면서 다문화주의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세계화 추세에 따라 각자의 문화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더 나아가 자유롭게 교류한다는 이론이다(wikipedia).³⁾

먼저 다문화 관용에 대한 논의를 펼치기 전에 일반적인 사회적 관용에 대한 논의를 언급하고자 한다. 사회적 관용은 다른 의견이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인정하는 정도를 의미한다(Kobayashi, 2010). 이를 다문화에 적용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 그들의 권리와 가치를 인정하고 나아가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말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다양한 인종이 모인 역사적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이를 인정하고 관용적 태도를 갖는 것을 통해 시민적 자유를 구현해왔다. 따라

3) Wikipedia, "Multiculturalism", <http://en.wikipedia.org/wiki/Multiculturalism>

서 사회적 관용이 매우 중요한 가치로서 자리매김을 해왔으며 관련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다. 한국 사회에서는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 얼마 되지 않았고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기에 사회적 관용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시작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금희조, 2011).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이주민과 더불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 다른 인종과 종족을 대상으로 한국인이 얼마나 관용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문화 수용성이란 측정지표를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다문화 수용성의 개념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용을 나타내는 지표로 다양한 척도가 개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다문화 수용성이란 개념을 통해 우리나라의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용을 측정하고자 한다.

윤인진 외(2010)에 따르면 다문화 수용성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와 서로 다른 인종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정도”로 볼 수 있다. 민무숙(2010)은 “타 집단, 타 문화에 대한 편견을 지니지 않고,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면서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해 협력하고자 하는 태도”로 정의 내리고 있다. 황정미(2007)은 보다 폭넓은 의미로서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다양한 민족 인종과의 공존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는 태도”를 다문화수용성으로 보았다.

Berry & Kalin(1995)는 다문화적인 사회로 진전되기 위해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수용되어야 하고, 타 인종 타 문화권에 대한 편견이 낮아야 하며, 집단 간의 긍정적인 상호적 태도와 통합된 사회에 대한 애착감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다문화사회에서 다문화 수용성이 가지는 시사점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 수용성은 빠르게 증가하는 외국인 인구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다문화 패러다임 속에서 이와 관련된 다문화 정책의 순응을 위해서도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원숙연, 2011). 정책 순응을 증진시키기 위

해서는 정책 대상자의 긍정적 인식과 충분한 이해가 필수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나라보다 빠른 시기에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해외의 국가들은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를 발전시켜 가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조사로는 유로바로미터 조사와 유럽사회조사가 있다.

유로바로미터조사(Eurobarometer Survey: EBS)는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비교사회 연구를 하기 위해 조사를 하고 있다.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1997년, 2000년 그리고 2003년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문화와 관련하여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주의 등 소수 민족에 대한 태도와 인지와 관련된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표 1> EBS의 다문화 수용성 지표4)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저항	- 어떤 사회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 좋은 것인가?
다문화 사회의 한계	- 다른 인종, 종교,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수에 대한 제한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합법 이민자에 대한 시민권	- 합법 이민자는 국민과 동등한 사회 권리를 가져야 한다. - 합법 이민자는 직계가족을 데려올 권리가 있다.
합법 이민자에 대한 정책	- 합법 이민자가 고용이 되지 않았을 시에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유럽사회조사(The European Social survey: ESS)에서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된 조사는 2002년 조사로 볼 수 있다. 소수민족과 인종, 이민자에 대한 태도와 여론과 관련된 다양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첫 번째로는 현재와 과거의 이민 규모, 다른 유럽국가의 이민 규모, 망명자 규모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지 정도에 대한 문항이 있다. 두 번째로는 노동시장, 경제, 문화, 빈곤, 범죄율, 공공예산에 대한 이민의 영향을 묻는 문항이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4)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2) 참고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 사회 자본에 관한 연구

1) 사회 자본에 관한 연구

사회 자본에 대한 국내의 초기 연구들은 그 개념과 한국에의 적용분야에 대한 관심에 의해 진행되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이후 사회 자본에 관한 정량적인 연구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사회 자본의 비교 연구를 통해 사회 자본이 지역발전 그리고 정책발전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실증적으로 밝히며 사회 자본의 역할이 강조되었다(진관훈, 2012).

행정학계를 중심으로 사회자본의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많은 연구들은 사회 자본을 독립변수로 취급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그 영향력을 알아보고 있다. 이 경우 대표적으로 사회 자본이 지역경쟁력, 지방정부 성과, 시민의 참여 및 만족도, 거버넌스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자본의 긍정적 기제를 밝히는 논문들이 존재한다.

반대로 사회 자본이 종속변수로 취급되어 어떤 요인들이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슷한 측면에서 사회자본 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남궁근, 2007; 이숙중·최준규·유희정, 2008; 박통희, 2010; 오승은, 2012). 최근에는 온라인 활동이나 소셜네트워크와 사회자본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도 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금희조, 2011; 노지영, 2012; 황영호·문유진·황우택, 2012).

반면, 사회적 자본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매우 취약한 편으로 박우순(2004)은 자칫 사회 자본에 대한 환상에 빠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표 2> 사회 자본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사회자본의 효과	문헌
지역·국가 경쟁력	권태형·박중화, 2010; 박희봉, 2010; 최기조, 2008
지방정부 성과	장석준, 2012; 정광호, 2010; 주용환, 2010
시민의 참여 및 만족도	이숙중·유희중, 2010; 이양수, 2006; 전성훈, 2010
거버넌스	이숙중·김희경·최준규, 2008; 박희봉, 2007
교육성과	박희봉, 2005; 이인자·한세희·이희선, 2011
부패	이정주, 2008; 전오진, 2009
고령자의 삶의 질, 노인일자리 사업	강소랑·문상호, 2012; 기영화, 2013
주관적 안녕감	한세희·김연희·이희선, 2010

2) 사회 자본의 구성요소

사회 자본의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연구의 초점과 학자의 시각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그러나 대체로 많은 연구들이 Putnam(1993)이 정의 내린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즉 신뢰, 호혜성의 규범,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박희봉 외, 2000; 이근수 외, 2007; 전성훈, 2010; 권영숙 외, 2011; 도수관, 2012; 전기우 외, 2012;).

또한 최근에는 구성요소 중에서 연결망을 결속형과 교량형으로 나누어 분석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이정주, 2008; 금희조, 2011; 이현우 외, 2011; 장석준, 2012; Putnam, 2000; Coffe & Grey, 2005). 장석준(2012)는 사회 자본이 지방정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 자본을 결속형 연결망과 교량형 연결망 그리고 호혜성의 규범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2.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

다양한 학계에서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의 흐름은 대체로 문화수용성의 개념에 대한 연구, 다문화 수용성의 척도를 개발하는 연구,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한 이론들을 검정하거나 적용한 연구들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1) 다문화 수용성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다문화 수용성의 영향요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윤상우·김상돈(2010)은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사회적 가치관(주관적 계층의식, 정치적 성향, 유교적 가치, 자민족중심주의, 세계화에 대한 인식)을 꼽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친밀도는 예상보다 높게 나왔지만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어 외국인 집단마다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외국인 친밀도와 이주민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 가치관 중에서도 정치적 이념성향과 유교적 가치관인 것으로 밝혀졌다.

맹진학(2009)는 다문화 배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 생계비, 계층 의식,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정도, 한국인에 대한 자부심, 소수민족이 전체사회에 섞이는 것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다문화 배제 태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외병·정명희(2012)는 다문화정책 정향성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여기서 다문화정책 정향성이란 동화, 다문화주의, 차별적 배제로 나눌 수 있는 ‘다문화 정책의 방향성’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동화의 다문화정책 정향성은 관계능력, 개방성, 공감에 다문화주의의 다문화 정책 정향성은 개방성, 공감에 차별적 배제의 다문화 정책 정향성은 개방성의 다문화 수용성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까지의 다문화 수용성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다문화 수용성이 국가정체성, 민족 자긍심, 정치 이념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밝혀왔다.

<표 3> 다문화 수용성의 영향요인과 관련한 학자들의 견해 요약

학자	다문화 수용성 영향요인
맹진학(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계층의식 - 사회적 불공정에 대한 인식 - 한국인 자부심 - 소수민족이 수용국가 전체사회에 섞이는 방식 선호
윤상우, 김상돈(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가치관(주관적 계층의식, 정치적 성향, 유교적 가치, 자민족중심주의, 세계화에 대한 인식)
윤인진, 송영호(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정체성의 인식유형 (혼합형, 종족형, 시민형, 다원형)
이현정, 안재웅, 이상우(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콘텐츠 시청의 양과 종류
황정미(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민족 자긍심 - 이념성향 - 시민성에 대한 태도
손애리(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정체성과 다문화 수용성, 경제적 이해관계가 탈북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양계민(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민족 정체성 - 자민족중심주의
박혜숙(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달 평균 독서량 - 본인이 지각한 외국어 수준 - 외국인 친구 유무 - 해외 방문 경험
정명희(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사회의 문화 간 감수성

본 연구는 기존의 다문화 수용성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자본이라는 이론틀을 통해 새로운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유의미하다고 밝혀진 요인들을 최대한 통제하여 사회자본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2) 선행연구의 다문화 수용성의 지표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국가별 비교를 시도한 유럽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 모니터링 센터(EUMC: EU Monitoring Center for Racism and Xenophobia)는 다른 인종, 민족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종족적 배제주의(ethnic exclusion)로 개념화하였다. 그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저항, 다문화 사회의 한계, 합법적 이주자의 시민권에 대한 반대, 합법적 이주자의 송환정책에 대한 선호, 다양성에 대한 저항, 이주자에 대한 저항, 난민에 대한 저항, 민족적 거리에 대한 선호, 집합적인 민족적 위협에 대한 인지, 범죄를 저지른 이주자의 송환정책 선호이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아직 다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가 체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연구 별로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황정미(2010)는 다문화 수용성을 두 차원으로 나누어 이주민에게 사회공동체의 구성원과 같은 보편적 권리를 인정하는가와 이주민의 증가로 인해 공동체에 부정적 변화나 위협이 미칠 것이라고 인지하는가를 알아 보았다.

윤상우·김상돈(2010)은 다문화 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친밀도와 이주민의 증가에 대한 수용성을 파악하였다. 전자는 외국인을 동료, 이웃, 친척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후자는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의 증가 및 감소를 각각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윤인진·송영호(2009)는 다문화 지향성과 자민족 지향성, 상충하는 두 요소를 중심으로 다문화 수용도를 측정하였다. 전자는 이주민에 대한 수

용성을, 후자는 한국인의 민족 자긍심과 자민족 중심주의를 본다.

기존연구의 접근방식을 살펴보면 다문화 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대체적으로, 다문화적 가치에 수용적인 태도를 포괄적인 상위 개념으로 정립하면서 외국인이나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 사회적 거리감, 국민 정체성 등의 개념들을 하위요소로 포함시키고 있다(황정미, 2010).

<표 4> 다문화 수용성 측정 개념들⁵⁾

학자	다문화수용성 측정 개념들
EUMC(2005)	- 종족적 배제주의
황정미 외(2007)	- 사회적 거리감 - 국민정체성과 시티즌쉽 -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태도 - 종족적 배제주의
윤인진·송영호 (2007) 김혜숙(2007) 이명진(2010)	- 사회적 거리감
오계택(2007)	- 종족 배제주의 척도 - 사회적 거리감
맹진학(2009)	- 사회적 배제태도(사회적 배제태도와 수용태도)
송미영(2010)	- ‘우리나라보다 형편이 어려운 외국의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는 보편적 가치척도
황정미(2010)	- 보편적 권리 수용 - 집합적 위협 인지
윤인진, 송영호 (2010)	-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태도 - 합법 체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지적 위협
한국여성정책 연구원(2012)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일방적 동화 기대, 거부회피정서, 교류행동의지,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행동

장임숙, 이원일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에 대한 위협 인지 - 다문화사회에 대한 지지 - 이주노동자의 송환 지지 - 민족적 거리감
김이선 외(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거리척도 - 종족적 배제주의
인태정, 김희재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자의 정치적 경제적 권리 - 이주자의 송환정책 - 이주자집단에 대한 위협의식

5)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2) 참고

3. 사회 자본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1) 사회 자본과 사회적 관용에 관한 연구

사회 자본과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직접적 연구는 드물다고 볼 수 있으나 Putnam(2000)이 사회 자본과 사회적 관용에 대한 문제를 암시한 바 있다. 이 때 사회적 관용이란 다른 가치관과 의견을 받아들이는 정도로서,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정도의 다문화 수용성과 상통하는 부분을 가질 수 있다.

Putnam(2000)은 사회 자본과 사회적 관용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 <표 5>과 같이 4개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표 5> 사회 자본과 관용; 4가지 유형의 사회⁶⁾

	낮은 사회 자본	높은 사회 자본
높은 관용성	1. 개인주의적 사회: (너는 네 일해라, 나는 내 일 하겠다.)	3. 시민적 공동체 (‘마녀’없는 세일럼)
낮은 관용성	2. 무정부주의적 사회;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	4. 분파주의적 공동체: 내집단vs 외집단, (‘마녀’사냥이 벌어지는 세일럼)

모델 1과 모델 4는 사회 자본과 사회적 관용이 상충하는 사회로 볼 수 있다. Putnam은 1960년대 이후부터 90년대까지, 미국의 사회 자본이 감소하면서 다양성과 사회적 관용이 증가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다. 공동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물론 존재하지만 반대로 공동체에 소속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손해가 존재하며 그것을 일종의 구속과 속박으로 보고 있다. 사회 자본이 감소함에 따라, 즉 집단으로 행동하는 것이 감소

6) Putnam, R. D. (2001). 정승현 역. 5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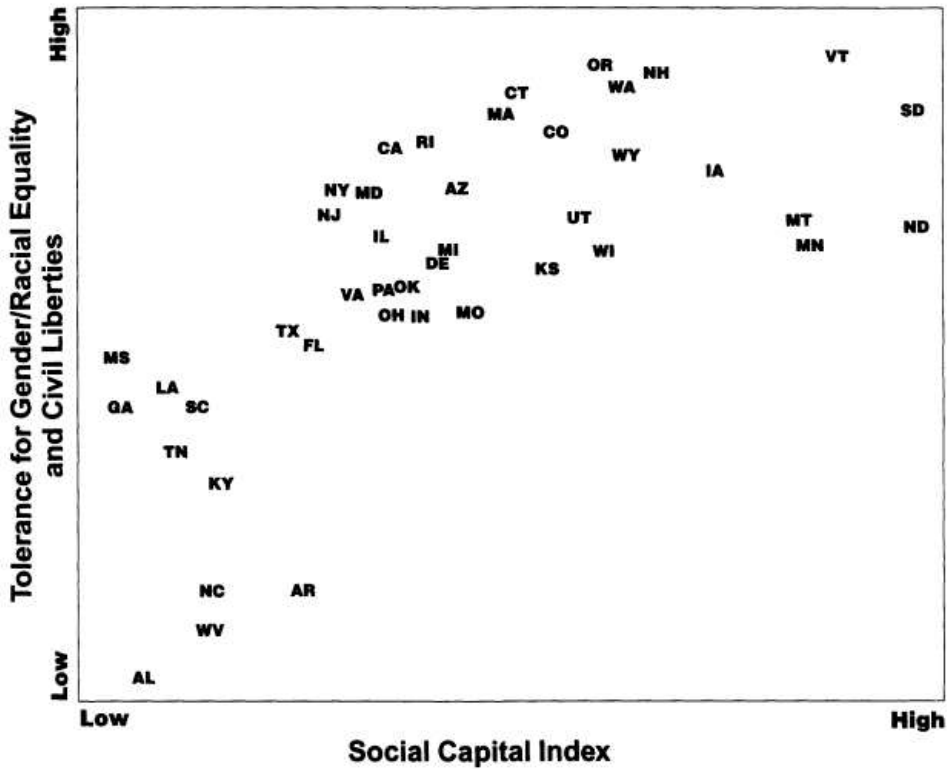
하고 혼자 행동하는 것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은 구속과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도 이전보다 훨씬 자유로운 시각으로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1번 모델을 지지하는 설명이다.

반면 Hero(2003)는 사회 자본이 높을수록 낮은 관용성을 보인다고 하며 4번의 모델에 대한 실증결과로 내놓기도 하였다. 그는 사회 자본을 분석한 많은 연구들이 인종적 문제에 대해서는 낙관적 결과만을 내놓거나 애매 모호하게 설명하며 지나가는 것을 지적하면서 사회 자본이 높은 지역일수록 소수집단 다양성이 적다는 통계결과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 자본이 높은 지역일수록 시민적 평등 정도(흑인 백인 등록 비율, 투표율 비율)와 경제적 평등 정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Putnam은 사회 자본과 관용성이 모두 높은 사회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희망적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모델 3의 사회이다. 그 근거로는 공동체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더 개방적이고 관용적일 수 있다는 것을 내세웠다. 또한 사회적 자본과 시민적 관용성 관계는 공동체 수준에서 개인의 수준보다 더 정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아래 그래프는 사회 자본이 높은 주일수록 인종통합에 관한 관용(백인 대상), 페미니즘의 관용, 시민적 자유의 관용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사회 자본과 사회적 관용의 관계는 여러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는 이것이 사회 자본의 가지는 속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Putnam이 제시한 사회 자본과 사회적 관용의 관계를 사회 자본과 다문화 수용성(다문화에 관한 관용)에 축소, 집중하여 각 사회 자본이 가지는 속성이 다문화 수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사회 자본과 시민적 관용의 관계⁷⁾



2) 사회 자본의 각 구성요소가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1) 신뢰

신뢰는 사회의 결속력을 높여주는 기능을 하며 따라서 신뢰가 부족한 사회는 사회 통합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0). 그런데 신뢰(generalized trust)의 통합기능이 타 문화를 지닌 외국인을 수용함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와 이론을 제시하였다.

신뢰가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7) Putnam, R. D.(2001), Bowling Alone, p.356

Uslaner(2002)의 논문에서 이론적 토대를 찾을 수 있다. 그는 신뢰 외국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 다른 문화권 사람에게 접촉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위험을 기피하고자 한다. 그런데 사회 신뢰자(social truster)의 경우, 타문화권 사람이 나를 속이기 전까지는 그를 돕고자 한다(benefit of the doubt). 사회 신뢰자들은 낯선 사람을 도움으로써 위험에 노출될 더 높은 가능성을 얻게 된다. 그러나 낯선 사람으로부터 배운 행위에 대한 보상이 돌아왔을 때 그 보상은 더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된다. 이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사회 신뢰자들은 사회적 지능(social intelligence)을 지니게 되고 ‘어떤 사람이 믿을만한지’에 대해 더 잘 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종에 대한 편견이 동원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믿을만한지’에 대한 빠른 지름길(cue)을 사용하게 되어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 사회를 신뢰할수록 외국에 대한 편견, 무조건적인 부정적 견해가 동원되지 않고 객관적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Herreros & Criado, 2009).

Weiming(2006) 역시 사회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신뢰는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사회 신뢰가 낮을 경우에는 타 문화와 협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이론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Herreros & Criado(2009)는 ESS를 활용해 사회 자본이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 자본이 높을수록 이민자 통합이 증진되었다. 그 근거로 높은 수준의 사회신뢰가 이민자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만들기 때문임을 내세웠다. 이 연구의 이슈는 사회의 접촉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회신뢰가 과연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즉 사회신뢰의 긍정적 기제가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한정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경계를 넘어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여부이다. 연구 결과, 신뢰는 직접적 효과로서 같은 문화, 인종적 백그라운드를 지닌 사람에게 한정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사회신뢰가 높아짐에 따라 이민자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증가하였다.

또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외국인의 증가를 위협적으로 느끼는 정도인 ‘인지된 위협’은 사회 불신자에게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즉 신뢰의 간접적 효과로서 사회신뢰가 높을수록 부정적 상황에서 외국인에게 느끼는 인지된 위협 정도가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장임숙·이원일(2012)은 성별, 다문화 교육여부, 정치적 신뢰수준, 외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다문화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사회적 신뢰수준의 경우, 통계결과가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사회신뢰가 높을수록 외국인에 대해 위협적으로 느끼는 정도가 약해졌고 다문화 사회를 지지하는 정도가 증가하였으며 민족적 거리감이 가까워지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저자는 이 결과를 사회 불신자 일수록 폐쇄적인 경향이 높아 같은 소속 구성원이 아닌 타 구성원에게 부정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선행연구인 Herreros & Criado(2009)에서 사회신뢰의 간접적 영향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정치적 신뢰가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Hjern(2005)은 정치 이념과 정치체제에 대한 신뢰가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특히 정치신뢰가 낮을수록 제노포비아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사회신뢰의 간접적 효과만을 제시하였던 장임숙·이원일(2012)의 경우, 정치적 신뢰수준은 다문화 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들과 다르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 이 결과에 대해 저자는 정치 신뢰가 높을수록 보수 성향일 가능성이 크고, 보수 성향일수록 다문화 인식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추론을 언급하였다.

(2) 호혜성의 규범

Boix & Posner(1998)은 사회 자본이 단기적 시각보다는 중장기적 시각을, 특정적 이익보다는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게 하여 집단행동을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하였다. 즉 사회 자본은 공익과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게 하는 중요한 기제인 것이다. 이러한 사회 자본의 특성은 다른 사회 행위자들 역시도 협력적인 행위에 응답하여 호혜적인 행위를 할 것이라는 믿음이 체계를 이룬 일반화된 호혜성에도 잘 응축되어 있다. 그런데 내집단간의 구축된 호혜성의 규범이 다른 문화를 가진 집단, 다른 인종 집단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결과가 예측될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호혜성의 규범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가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Stolle & Rochon, 2001; Warren, 2001; Cigler & Joslyn, 2002; Uslander & Conley 2003; Paxton, 2004; Pickering, 2006; Cote & Erickson, 2009에서 인용). 즉 내집단 구성원들 사이에 구축된 호혜성의 규범은 경계를 넘어 같은 배경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황정미(2010)는 민족적 자긍심은 다문화 수용성에 부정적 영향을, 시민 참여의 시각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특히 개입 공존형 시민성이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호혜성의 규범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개입 공존형 시민성이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행위, 호혜적 행위, 정부를 감시하는 등의 시민활동의 참여 등의 시민의 자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이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호혜적이 행위를 할수록, 바람직한 가치가 실행되도록 활동적으로 행동할수록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호혜성의 규범을 자원봉사의 참여 정도로 측정하고자 한다. Cote & Erickson (2009)은 이러한 이유가 자원봉사 참여활동이 여러 방면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공공의 문제를 위해서 모인

행동이라는 점에서 소수집단의 관용적 태도가 높아질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적 학습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 참여가 다문화 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선행연구들도 소수 존재하고 있다. Cote·Erickson (2009)의 연구 결과, 저자의 연구가설과는 다르게 자원봉사와 인종적 관용 사이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glič (2010)는 자원봉사가 일반적 신뢰가 아닌 특정적 신뢰를 만들어 사회적 관용을 감소시킨다고 지적하였다.

(3) 연결망

최근에는 구성요소 중에서 연결망을 결속형과 교량형으로 나누어 분석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으며(이정주, 2008; 금희조, 2011; 이현우 외, 2011; 장석준, 2012; Coffe & Grey, 2005), 이는 두 구성요소 간의 차별적인 효과를 찾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결속형 연결망과 교량형 연결망의 차별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선행연구들은 <표 6>과 같은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6> 결속형 연결망과 교량형 연결망의 차별적인 효과

학자	주제	연구 결과
이현우 외(2011)	사회자본이 지역주의에 미치는 영향	- 교량형은 지역주의를 완화 - 결속형은 지역주의를 강화
장석준 (2012)	사회자본이 지방정부 성과에 미치는 영향	- 교량형은 지방정부 성과에 긍정적 영향 - 결속형은 부정적 영향
이정주 (2008)	OECD국가를 대상으로 사회자본과 부패의 관계	- 교량형은 부패를 감소 - 결속형은 부패를 증가
금희조 (2011)	소셜미디어의 사회자본이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	- 교량형 연결망이 축적될 경우 다문화 관용 증가

대체적으로 교량형은 긍정적 영향을, 결속형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드시 결속형 연결망이 사회 자본의 부정적인 요소라고는 단정 지을 수 없다. Coleman(1988)과 Bourdieu(1985)는 폐쇄적인 집단일수록, 결속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자본을 얻기가 유용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경우 혹은 내부적으로 결속이 부정행위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결속형 연결망의 부정적 기제가 심화될 수 있다. 특히 다문화 사회에서 결속형 연결망과 같은 기제를 통해 다수 집단이 외집단이 외국인에게 배타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갈등의 양상이 심화될 수 있다.

교량형 연결망과 결속형 연결망이 다문화 수용성에 차별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란 이론적 토대에 대해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정광호(2010)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1차적 사회 자본에 머물지 않고, 다른 구성원을 이해하고 협력하려는 2차적 사회 자본이 많아질 때 갈등으로 인한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Ikeda & Kobayashi(2009)는 개인의 이질적 대인 네트워크(heterogeneous network)가 사회적 관용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이질적 대인 네트워크는 교량형 사회 자본의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즉 다양한 네트워크를 축적할 수 있는 교량형 연결망을 통해 사회적 관용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결속형 연결망에 대해서 정광호(2010)는 사회 자본이 집단적 배타성을 촉발할 수 있고, 강력한 유대감을 지닌 집단과 이질적인 집단 사이의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최종렬(2008)은 사회 자본의 부정적 측면으로 집단적 배타성이 촉발될 수 있으며, 호혜성이 일반적이 아닌 특정적(부정적) 호혜성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김희조(2011)는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이 이주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없애고 그들에 대한 관용성을 증진시키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 매체는 관용성을 증진시키지는 못하고 다만 다문화에 대한 의제 설정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점은 소

설미디어를 통해서 교량형 사회 자본이 형성될 경우에는 관용적 태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였다. 반면 결속형 연결망의 특성을 지닐 때는 편협한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Cote & Erickson (2009)는 네트워크, 자원봉사 참여, 개인적 특성이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그 결과 연령대가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큰 커뮤니티에 살수록 관용적 태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양한 사회 네트워크를 지닐수록 관용이 커진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면서 ‘어디로 다리를 잇느냐’ 즉 어떤 다양성을 지니는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Howe(2006)는 Brunswick을 대상으로 사회자본과 인종적 화합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다양한 인종이 교류하는 네트워크(Interethnic Social Network)가 인종 화합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 유의미성이 검증되지 않아 기존의 인식과 다른 연구결과가 제시되었으나, 반면 교량형 연결망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다양한 그룹의 참여(multiple group), 참여의 지속성, 참여의 강도 등은 인종적 화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4. 선행연구의 의의 및 한계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그 부정적인 영향을 다룬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김우식, 2006; 박우순, 2004; 이정주, 2008). 대부분의 연구들이 사회 자본의 긍정적 영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자본의 실제 작동에 대해서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정광호(2010) 역시 사회 자본이 집단적 배타성을 촉발할 수 있고, 강력한 유대감을 지닌 집단과 이질적인 집단 사이의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자본의 문제점은 다문화 사회에 적용하여 보았을 때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강한 결속력을 지닌 다수의 집단이 소수의 이질적 집단에 대한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태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갈등으로 확

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단일 민족이라는 패러다임 하에서 다수집단의 응집력이 매우 강하다. 또한 지연, 학연의 문제점 등이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이러한 결속이 낳을 수 있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더해질 수 있다. 이는 사회 자본이 다문화 사회로의 진전을 어렵게 하는 부정적 기제로 작동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이 그 구성요소에 따라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음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기존의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들은 그 연구 대상이 아동, 청소년, 대학생 등 주로 성장기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다양한 연령대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을 통해 다문화 수용성의 정확한 영향요인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서울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연령, 학력, 소득을 가진 시민들을 대상으로 통계 분석을 시도하여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분석이 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앞서 진행된 사회 자본과 다문화와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소수집단 내의 구성원들이 다수집단의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사회 자본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있다(김정훈·임안나, 2010; 김형빈·이진석, 2011; 김기홍·허태영, 2012). 소수집단 내의 사회 자본이 그들의 사회 적응과 더 나은 사회적 위치를 점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이 역시 매우 중요한 연구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자본이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소수집단의 경우, 어느 집단보다 사회 자본의 중요성이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점의 연구로만 초점이 맞춰진다면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발생할 수 있다. 먼저 소수집단이 다수의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 초점을 뒀으로써 다수의 문화에 편입, 융화 되어야 한다는 동화주의의 입장에 치우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다문화 사회로의 진전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다수의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른 문화, 종교, 인종을 가진 사회 구성원, 이주민에 대한 다수 시민의 배제적이고 차별적인 시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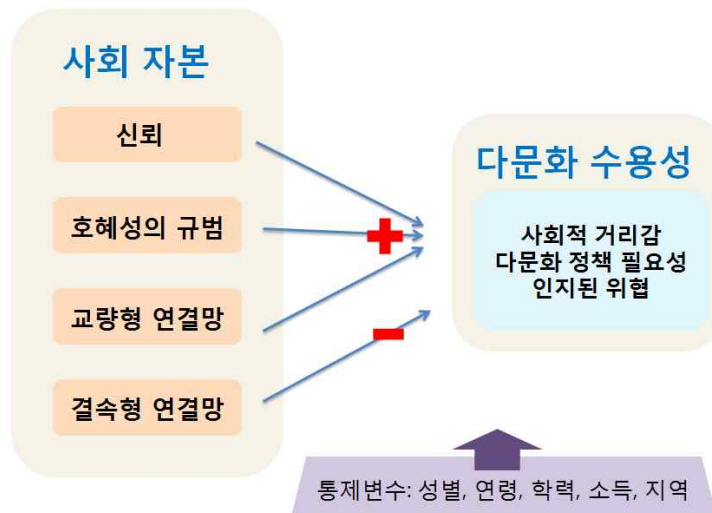
사회 갈등의 소지를 지니고 있다. 다문화 사회로의 진전과 이를 위한 다문화 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다수집단인 시민의 행태가 중요하다. 즉 타 문화를 바라보는 시민의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다수의 집단이 가지고 있는 사회 자본이 소수집단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느냐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제 3 장 연구 설계 및 분석방법

제 1 절 연구분석 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 자본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 자본이 다문화 수용성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의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종합하여 개인적 특성들을 통제변수에 포함시켰으며, 사회 자본의 구성요소와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변인들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다. 사회 자본은 신뢰, 호혜성의 규범, 교량형 연결망, 결속형 연결망으로 설정하였고, 다문화수용성은 사회적 거리감, 다문화정책 필요성, 인지된 위협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지역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본 연구의 분석틀



제 2 절 연구의 가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자본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1. 신뢰와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

Herreros, Criado(2009)는 실증연구를 통해 사회신뢰가 이민자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만들며 이민자통합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밝혀냈다. Hjern(2005)은 정치신뢰가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신뢰가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가설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그 영향 경로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하여 신뢰를 사회신뢰와 기관신뢰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가설 1. 신뢰가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 |
|---|
| 1.1 사회신뢰가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 1.1.1 사회신뢰가 사회적 거리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 1.1.2 사회신뢰가 다문화정책 필요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 1.1.3 사회신뢰가 인지된 위협에 부정적인(-)영향을 미칠 것이다. |
| 1.2 기관신뢰가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 1.2.1 기관신뢰가 사회적 거리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 1.2.2 기관신뢰가 다문화 정책 필요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 1.2.3 기관신뢰가 인지된 위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호혜성의 규범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

호혜성의 규범은 자신이 타인에게 베푸는 행위가 언젠가는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믿음의 체계이다. 황정미(2010)의 경우, 사회적 약자들 돌보 고자 하는 등의 개입 공존성을 중시하는 시민적 태도가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밝혀낸 바 있다. 이 외에도 많은 선행연구들이 호혜성의 규범의 한 예로 볼 수 있는 자원봉사의 참여가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내집단에서 구축된 호혜성의 규범이 외집단을 수용하는 경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도출할 수 있었다.

가설 2. 호혜성의 규범이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1 호혜성의 규범이 사회적 거리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2 호혜성의 규범이 다문화정책 필요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3 호혜성의 규범이 인지된 위협에 부정적인(-)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교량형 연결망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

금희조(2011)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교량형 연결망이 생성될 때, 다문화 수용성이 증진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타 집단과 활발한 교류를 가지며 수평적 네트워크를 지니는 교량형 연결망은, 외국인 집단과 공존하며 어울리려는 정도인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가설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가설 3. 교량형 연결망이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교량형 연결망이 사회적 거리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교량형 연결망이 다문화정책 필요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교량형 연결망이 인지된 위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결속형 연결망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

결속형 연결망은 같은 출신의 집단을 중심으로 활성화되며 내집단을 중요시하는 연결망으로서, 소수집단인 외국인 집단을 받아들이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 역시 집단적 배타성과 특정적 호혜성, 신뢰가 문제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4. 결속형 연결망이 다문화 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1 결속형 연결망이 사회적 거리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2 결속형 연결망이 다문화정책 필요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3 결속형 연결망이 인지된 위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 3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

본 연구는 사회 자본의 측정 변수로 ‘신뢰’, ‘호혜성의 규범’, ‘결속형 연결망’, ‘교량형 연결망’을 설정하였으며, 다문화 수용성의 측정변수는 ‘사회적 거리감’, ‘다문화 정책 필요성’, ‘위협 인지’로 설정하여 실증분석하였다.

1. 종속변수: 다문화 수용성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수용성을 사회적 거리감, 다문화 정책 필요성, 인지된 위협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적 거리감

사회적 거리감은 사회적 관계 맺음을 허용하는 정도로 볼 수 있다. 즉 특정 집단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개념이다. 장애인, 특정 직업 집단, 동성애자 그리고 외국인 소수집단 등을 대상으로 측정되는데 주로 외국인 집단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까지 사회적 관계를 정립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나타낸다. Bogardus가 인간관계의 거리를 과학적으로 측정하고자 개발하였으며, 그의 이름을 따 보가더스 척도로 불리고 있다. 다문화 수용성을 측정할 때 많은 선행 연구들이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 지표로 사용하고 있으며, 보가더스 척도 그대로 혹은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다(황정미·김이선·이명진·최현·이동주, 2007; 김석호 외, 2013).

본래 보가더스 척도가 설정될 때에는 미국인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항목들 간의 위계가 설정되었으며 결혼, 친구, 직장동료, 이웃, 지인, 국민, 방문객의 순으로 중요시 한다는 가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을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외국인을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등의 질문을 통해 외국인 집단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

들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측정한다. 그러나 한국 시민이 연구 대상이 되었을 때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약간의 위계적인 변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김석호 외, 2013). 본 연구에서는 서울 서베이에서 질문하고 있는 문항을 활용하여 외국인을 가족, 친구, 이웃으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 측정하고자 한다.

2) 다문화 정책 필요성

다문화 정책 필요성은 다문화 사회로의 진전 필요성과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준다. 윤인진·송영호(2010)는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는데 다문화지향적인 태도와 자민족지향적인 태도 즉 긍정적·부정적 태도로 나누어 특정하였다. 다문화지향적인 태도에 관한 문항을 살펴보면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 공존이 좋다”, “인종, 종교,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면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된다”, “외국인 이주자가 늘면 우리나라 문화는 더욱 풍부해진다”로 이루어져 있다. 장임숙, 이원일(2012) 역시 윤인진, 송영호(2010)와 비슷한 문항을 사용하여 다문화 사회에 대한 지지를 측정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다문화 사회에 대한 태도나 지지를 측정하고 있으며 다문화 정책에 있어서는 이주자의 송환 정책을 지지하느냐에 대해 측정하고 있다. 반면 외국인의 보편적 권리를 지지하는지에 대해 묻고 있는 선행연구들도 존재한다(황정미, 2010; 인태정·김희재, 2009).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이민정책 필요성과 결혼이주자 사회편견 해소정책 필요성에 대한 문항을 통해 다문화 사회로의 진전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현 사회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시각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3) 인지된 위협

인지된 위협은 이주민이 들어오고 구성원의 경계가 변화함에 따라 개인이 어떠한 위협을 느끼는지 혹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부정적인 변화나 위협이 있을 것이라고 느끼는지에 대한 개념이다. 윤인진·송영호(2010)는 합법 체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지적 위협을 측정하는데 경제적 위협과 사회·심리적 위협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경제적 위협에 대해서는 “합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회·심리적 위협에 관해서는 “합법 체류 노동자들이 늘어나면 범죄율이 올라간다.”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위협에 집중하여 이민자들이 많아지면 일자리가 위협받는다 고 느끼는지에 대한 문항을 통해 인지된 위협을 측정하고자 한다.

2. 독립변수: 사회 자본

사회 자본은 신뢰, 호혜성의 규범, 교량형 연결망, 결속형 연결망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신뢰

신뢰는 다른 사람의 선의가 기대되는 행동에 대한 믿음으로 볼 수 있다. 박희봉 외(2000)은 신뢰를 이웃에 대한 신뢰, 정부에 대한 신뢰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각 대상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를 묻는 문항을 통해 신뢰를 측정하였다. 이처럼 직접적으로 특정 대상에 대한 신뢰를 묻는 연구들도 다수 존재하지만 간접적인 질문을 통해 신뢰를 도출해내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이숙종 외(2008)의 경우에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이익보다 남을 도우려 한다.”,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기보다 공정하게 대하려 한다.” 등의 문항을 이용하였다. 신뢰를 측정하기 위한 사회 실험으

로 신뢰 게임(최후통첩 게임)이 진행되기도 한다. 8) 본 연구에서는 이웃, 처음 만난 사람, 공공기관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묻는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이 중에서 이웃과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신뢰를 묶어 사회 신뢰로 칭하였다.

2) 호혜성의 규범

호혜성의 규범(norm of generalized reciprocity)은 도덕적 의무감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사회 행위자들 역시도 협력적인 행위에 응답하여 호혜적인 행위를 할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타인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호혜성의 규범은 대체적으로 헌혈, 적십자회비 등으로 측정된다(정광호, 2010). 본 논문에서는 자원봉사의 정도를 통해 측정하고자 한다. 자원봉사의 정도를 통해 호혜성의 규범을 측정하는 연구사례(송경재, 2006)가 드물기는 하지만 자원 봉사가 타인을 위한 협력적인 행위이며 도덕적 의무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볼 때, 호혜성의 규범을 자원 봉사의 정도를 통해 측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 결속형 연결망

결속형 연결망은 동질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한 조직 등 닫힌 네트워크(closed network)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강력한 공동체 내부의 연계를 통해서 집단의 정체성과 공동의 목표를 강조한다. 이현우 외(2011)는 결속형 결사체에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계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향우회, 동창회, 정당을 중심으로 하나도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0, 한 단체에 참여했을 경우 1, 두 단체에 참여했을 경우 2, 세 단체에 모두 참여했을 경우 3의 값을 부여하여 측정하였다.

8) KBS 특별기획 사회적 자본(2011.11.29-12.1 방영)

4) 교량형 연결망

교량형 연결망은 다른 사회 영역에 존재하는 사람들 간의 연합으로 볼 수 있으며 포괄적 네트워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상이한 공동체 간의 수평적 관계를 중시한다. 이현우 외(2011)는 교량형 연결망을 자선단체, 동호회, 노동조합, 직업과 관련된 협회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민 단체, 동호회, 친목회 등 공적 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공동체 혹은 보편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동체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시민단체의 경우, 조직의 성격에 따라 결속형 연결망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다양한 성격의 시민단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시민단체가 공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교량형 연결망으로 설정하였다. 교량형 역시 결속형 연결망과 같은 방식으로 시민 단체, 동호회, 친목회 중에서 하나도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0, 한 단체에 참여했을 경우 1, 두 단체에 참여했을 경우 2, 세 단체에 모두 참여했을 경우 3의 값을 부여하여 측정하였다.

3. 통제변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학적, 사회학적 및 기타 변수들을 통제 변수로 설정하여 사회 자본의 순수한 효과를 보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표 7> 선행연구의 다문화 수용성 영향요인⁹⁾

학자	다문화 수용성 영향요인
맹진학(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특성: 계층 귀속감(+), 취업 여부, 사회적 공정성(+), 한국인 자부심(-), 동아시아 친밀도, 개인 삶의 중요가치 요인(자기-개선(-), 변화의 개방성(+), 가족과 건강, 자기-초월(-)) - 지역 특성: 외국인 등록 비율, 최저생계비율(-)
윤상우, 김상돈(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가치관: 주관적 계층의식(+), 진보성향(+), 유교적 가치(-), 자민족중심주의(-), 세계화에 대한 인식(+) - 사회 인구학적 특성: 교육(+), 직업-전문직종사(+), 평균 소득(+), 연령(-), 성별-남성(+), 기혼(+)
윤인진, 송영호(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남성(+), 연령, 교육 수준, 주관적 계층 인식(-), 이념 보수성향(-) - 외국인 접촉: 외국방문 경험 있음, 국내 거주 외국인 대화 및 교류
황정미(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 교육 수준(+)
박혜숙(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달 평균 독서량(+), 본인이 지각한 외국어 수준(+), 외국인 친구 유무(+), 해외 방문 경험(+)
원숙연(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 차원: 성별-남성(-), 연령(-), 소득(+), 학력(+) - 집합적 차원: 거주 외국인 비율(-), 재정자립도(-), 외국인 출신국의 영향력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주로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소득, 이념 성향 등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채택한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소득, 학력, 지역이다. 사회 자본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순수한 효과를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외국인 접촉 비율, 접촉하는 외국인의 출신국 특성 등은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으나, 서울 생활권을 더미변수로 하여 일정 부분 이를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의 통제변수에 대하여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9) 긍정적인 영향은 (+), 부정적인 영향은 (-)로 표시하였으며, 연구모형에는 포함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 (+),(-) 표시하지 않음

1) 성별

성별은 다문화 수용성을 측정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에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타인에 대한 공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수집단인 외국인 집단에 대해 남성에 비해 동등한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아직까지는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남성에 비해 낮은 상황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외국인에 대해 경쟁의식을 느낄 확률이 적으며 외국인에 대한 위협을 느낄 가능성이 적어진다(원숙연, 2011).

대다수의 연구들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다문화 수용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반대의 결과 역시 제시되고 있다(윤상우 김상돈, 2009; 윤인진 송영호, 2011). 그 배경으로는 남성의 사회참여가 여성에 비해 높으며, 사회 참여가 높을수록 사회적 관용이 높아져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낮고 그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다는 설명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성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나, 다문화수용성의 어떤 구성요소가 강조되느냐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을 더미변수로서 남자는 0, 여자는 1의 값을 부여하여 코딩하였다.

2) 연령

일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며 진보적인 성향이 높고, 연령이 많을수록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다문화 수용성에 있어서도 연령이 낮을수록 그 수치가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원숙연, 2011; 황정미, 2010; 윤상우 김상돈, 2009). 원숙연(2011)은 연령이 낮을수록 개방적인 태도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동원될 가능성이 낮고, 진보적인 성향으로 인해 특정 집단에 의한 소수집단의 차별을 부정적으로 느

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를 시정할 정책의 개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유인이 높아진다고 말한다. 반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에 둔감해지고, 외국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낄 가능성이 커지며, 다문화 정책의 시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낄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10대가 1, 20대가 2, 30대가 3, 40대가 4, 50대가 5, 60대는 6의 값을 부여하여 측정하였다.

3) 소득

다문화 수용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 중 경쟁이론과 직결된 변수가 바로 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경쟁이론이란 외국인에 대해 평가를 내릴 때 나와 경쟁상대가 된다고 느끼며 위협을 받을 때 외국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특히 나의 자원이 불안정한 상황일 때, 외국인의 증가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제로섬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위협이 매우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경우일수록 외국인의 존재를 위협적으로 느끼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원숙연, 201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특히 우리나라의 이주 외국인의 상당수가 낮은 직급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저소득계층과 노동시장 경쟁을 확률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00만원 미만에게는 1, 100-200만원 미만에게는 2, 200-300만 미만에게는 3, 300-400만 미만에게는 4, 400-500만 미만에게는 5, 500만 이상은 6의 값을 부여하여 측정하였다.

4) 학력

학력 역시 경쟁이론과 관련이 깊다. 높은 학력의 소유자는 높은 직급을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외국인을 자신의 경쟁상대로 생각할 가능성이 낮고, 외국인을 위협적인 상대로 느낄 가능성도 적다. 반

면 학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노동시장에서 외국인과 경쟁해야할 가능성이 크고 위협적인 존재로 느낄 가능성이 크다. Cote & Erickson(2009)에 따르면 중산층 계급이 많은 네트워크일수록 관용이 높았는데 그 이유를 학력이 높으면서도 경제적 지위가 있어서 소수집단과 경쟁의식을 덜 느끼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타인에 대한 공감도 높아져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동원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에 대해 원숙연(2011)은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다양성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타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며, 소수 집단에 대한 수용과 감수성 등이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더불어 평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집단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개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졸이하에게 1, 고졸이하에게 2, 대졸이하에게 3, 대학원 이상에게는 4의 값을 부여하여 측정하였다.

5) 지역

앞서 설명하였듯이 본 연구는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외국인의 접촉 빈도, 외국인의 출신국 등을 대신하여 지역을 통제하고자 한다. 맹진학(2009), 원숙연(2011) 등은 지역적 차원에서 외국인 비율 그리고 외국인의 출신국을 분석하였다. 외국인의 거주비율이 높을수록 외국인과 접촉 빈도가 높아지게 된다. 다문화 수용성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 중 하나인 접촉가설에서는 접촉 빈도가 높아질수록 외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해체되고 친숙도가 높아져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외국인의 출신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시민들이 서구 출신국의 외국인, 선진국 출신의 외국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윤상우·김삼돈(2010)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 대만> 중국> 동남아시아 순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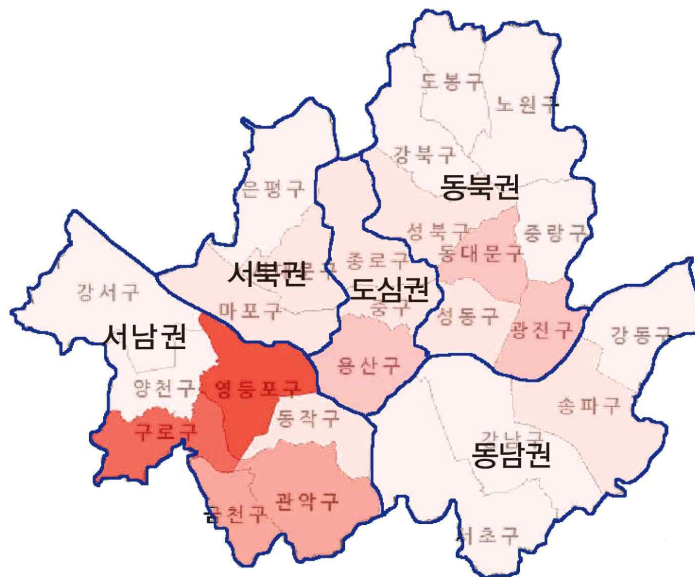
거주 외국인의 규모를 살펴보면, 서남권이 125,768명으로 가장 많으며 동북권이 57,697명, 도심권이 28,485명, 서북권이 23,705명, 동남권이

23,556명이다¹⁰⁾.

각 지역의 외국인의 출신 거주국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¹¹⁾.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남권의 경우, 구로구 가리봉동 조선족 마을이 있으며, 영등포구에도 약 3만 명 정도의 한국계 중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동북권에는 대표적으로 서대문구 연남동에 차이나타운이 있다. 도심권에는 종로구 혜화동의 필리핀 거리, 창신동의 네팔 거리, 중구 광희동의 러시아 및 몽골 촌 그리고 용산구 동부이촌동, 한남동의 미국인 촌 등이 존재하고 있어 다양한 국가의 마을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적은 외국인 인구가 거주하는 서북권에는 특별히 조성된 외국인 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동남권에는 서초구 반포동에 프랑스인 촌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외국인 거주 규모가 작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남권을 기준으로 더미변수화 하여 지역의 영향력을 통제하고자 한다.

<그림 3> 서울시의 외국인 분포¹²⁾



10) 서울통계연보, 2012년 기준
 11) 서울통계(2012 기준)과 원숙연(2011)을 참고하였음
 12) 서울통계(2012기준), <http://me2.do/xjp8da31>

<표 8> 변수의 조작적 정의

구분	변수	구성요소	척도	
종속 변수	사회적 거리감	가족으로 수용도	5점 척도	
		친구로 수용도	5점 척도	
		이웃으로 수용도	5점 척도	
	다문화 정책필요성	외국인 이민정책 필요성	5점 척도	
		결혼이주자 사회편견 해소정책 필요성	5점 척도	
	위협 인지	이민자 증가로 인한 일자리 위협 인식도	5점 척도	
독립 변수	신뢰	사회 신뢰	이웃에 대한 신뢰	5점 척도
			처음 만난 사람에게 대한 신뢰	5점 척도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5점 척도
	호혜성의 규범	자원봉사 참여 정도	5점 척도	
	교량형 연결망	친목회, 동호회, 시민운동단체 참여도	3점 척도	
	결속형 연결망	향우회, 동창회, 정당 참여도	3점 척도	

<표 9> 통제변수의 측정

	설문구성	구분
통제 변수	성별	남, 여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소득	100만 미만, 100-200만 미만, 200-300만 미만, 300-400만 미만, 400-500만 미만, 500만 이상
	학력	중졸이하, 고졸이하, 대졸이하, 대학원 이상
	지역	중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제 4 절 설문구성

본 연구는 ‘2011 서울서베이’를 활용하였다. 다음 <표 10>는 ‘서울서베이’의 문항 중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문항을 정리한 것이다.

<표 10> 설문문항

구분	변수	설문문항
종속변수 (다문화 수용성)	사회적 거리감	1) 나 혹은 나의 자녀가 외국인과 결혼하면 가족 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2) 나는 외국인을 나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3) 나는 외국인을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 다
	다문화정책 필요성	1)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 2)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해소 정책이 필요하다
	위협 인지	1) 이민자들이 많아지면 나의 일자리를 빼앗길 것 같다
독립변수 (사회 자본)	신뢰	귀하께서는 다음의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해 얼마 나 신뢰하십니까? 1) 이웃 2) 처음 만난 사람 3) 공공기관
	호혜성의 규범	귀하는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신 적 이 있으십니까?
	교량형 연결망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모임 또는 단체활 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참여 경험이 있는 것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결속형 연결망	

제 5 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수집¹³⁾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한 2011년도 서울 서베이를 사용하고자 한다. 서울 서베이 사업은 2003년도부터 서울의 지역경쟁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지표 수립을 목표로 수행되고 있다. 인구, 경제, 도시 발전과 주거, 문화, 관광, 복지, 여성과 가족, 환경, 교통, 정보 지식, 안전 재난, 가치와 의식 등 총 12개의 분야에 관한 도시정책 지표를 설정하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1년 서울 서베이는 사회신뢰와 더불어 사회에 대한 가치관 의식과 함께 다문화사회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 서베이는 2009년부터 가구, 사업체와 함께 외국인도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는 2011년 기준 서울시 외국인 거주 인구가 28여만 명에 이르는 등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상황에서 서울의 경쟁력을 증진시키고 이를 잘 맞이할 수 있는 도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 자본의 작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 자본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에서 자주 연구대상으로 연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11년 서울 서베이 자료를 사용하고자 한다.

2011년 서울서베이는 2011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한 달 동안 조사되었으며 서울시 거주 가구, 15세 이상 가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가구방문을 통한 면접조사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모집단은 주민등록과 과세대장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표본의 변동 확률을 최소화하여 확장되었다. 표본의 크기는 45,605명이며 층화2단 집락추출법을 통해 표본이 추출되었다.

13) 2011 서울서베이 레포트(서울연구원) 참고

2. 분석방법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리고 다문화 수용성의 영향요인을 연구한 선행 논문들을 통해 도출한 통제변수에 대한 기초분석을 진행한다.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사회 자본과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가설을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의 회귀계수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제 4 장 분석 결과

제 1 절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남성은 22,542(49.4%)명, 여성은 23,063명(50.6%)이다. 연령은 10대가 3,385명(7.4%), 20대가 7,648명(16.8%) 30대가 9,290명(20.4%), 40대가 8,838명(19.4%), 50대가 8,013명(17.6%) 그리고 60대 이상이 8,431명(18.5%)이다. 학력은 중졸이하는 6,375명(14%), 고졸이하는 16,863명(37%), 대졸이하는 21,568(47.3%), 대학원 이상은 800명(1.8%)이 차지하고 있다. 소득은 100만원 미만은 1,806명(4%), 100-200만원 미만은 5,110명(11.2%), 200-300만원 미만은 7,488명(16.4%), 300-400만 미만은 10,822명(23.7%), 400-500만 미만은 9,035명(19.8%) 그리고 500만원 이상은 11,318명(24.8%)으로 나타났다.

2011 서울서베이 레포트(서울연구원, 2011)과 서울통계연보(2012년 기준)에 따르면, 서울의 남녀 비율은 남성이 49.4%(5,159,665명), 여성이 50.6%(5,282,761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학력은 전문대졸 이상, 평균소득은 327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대표성이 확보된 것을 볼 수 있다.

<표 11>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	22,542	49.4
	여	23,063	50.6
	총계	45,605	100
연령	10대	3,385	7.4
	20대	7,648	16.8
	30대	9,290	20.4
	40대	8,838	19.4
	50대	8,013	17.6
	60대	8,431	18.5
	총계	45,605	100
소득	100만 미만	1,806	4
	100-200만 미만	5,110	11.2
	200-300만 미만	7,488	16.4
	300-400만 미만	10,822	23.7
	400-500만 미만	9,035	19.8
	500만 이상	11,318	24.8
	총계	45,605	100
학력	중졸이하	6,375	14
	고졸이하	16,863	37
	대졸이하	21,568	47.3
	대학원 이상	800	1.8
	총계	45,605	100
지역	도심권	2,284	5
	동북권	14,851	32.6
	서북권	5,324	11.7
	서남권	13,456	29.5
	동남권	9,688	21.2
	총계	45,605	100

제 2 절 변수의 기초 통계량

아래 <표 12>는 독립변수인 사회 자본의 기초 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 자본의 평균값은 1.42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¹⁴⁾ 이는 호혜성의 규범과 연결망이 매우 낮은 평균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뢰 역시 2.89의 값을 가지고 있어 보통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다르게 사회 신뢰에 비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게 측정되었다는 점이다. 호혜성의 규범의 평균은 1.13, 결속형 연결망의 평균은 0.51, 교량형 연결망의 평균은 0.5로 나타났다.

<표 12> 사회 자본 기초분석

변수명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체		46,505	1.42	0.41	0.5	4.1
신뢰		45,605	2.89	0.64	1	5
사회신뢰	사회신뢰	45,605	2.81	0.73	1	5
	이웃 신뢰	45,605	3.32	0.85	1	5
	처음 보는 사람 신뢰	45,605	2.30	0.89	1	5
공공기관 신뢰		45,605	3.06	0.86	1	5
호혜성의 규범		45,605	1.13	0.30	1	5
교량형 연결망		45,605	0.5	0.56	0	3
결속형 연결망		45,605	0.51	0.58	0	3

다음 <표 13>은 종속변수인 다문화 수용성의 기초 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다문화 수용성의 평균값은 3.29로 일반적인 인식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중 사회적 거리감의 평균은 3.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감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웃, 친구, 가족 순으로 평균이 낮아져 일반적으로 가족, 친구, 이웃 순으로

14) 신뢰, 자원봉사, 교량형, 결속형 연결망을 5점 척도로 가중 평균 함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거리감 역시 우선순위에 따라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보가더스 척도의 전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문화 정책 필요성은 3.16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지된 위협(역코딩)은 2.79로 다문화 수용성의 하위요인 중 가장 낮은 평균값을 가지고 있으며 보통의 수준에 가깝긴 하지만 약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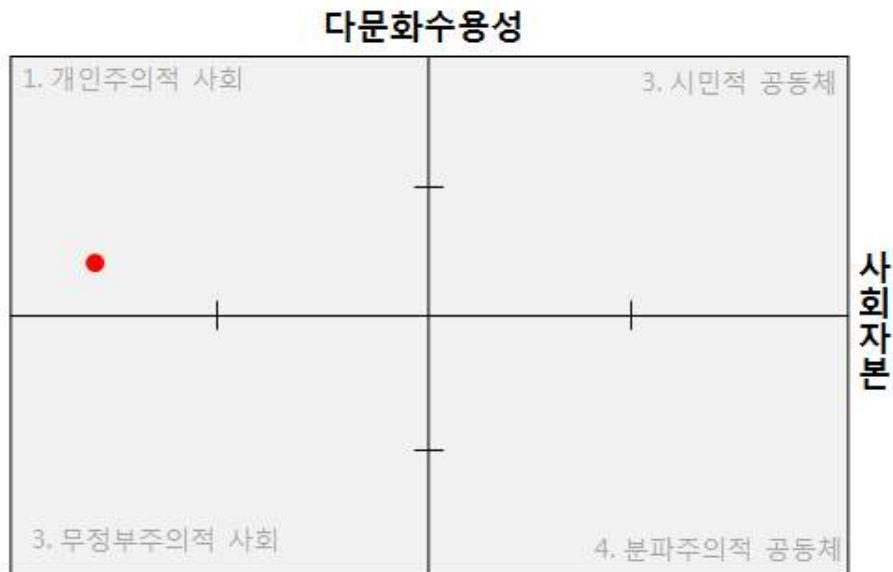
<표 13> 다문화 수용성 기초분석

변수명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체	45,605	3.29	0.49	1.33	5
사회적 거리감	45,605	3.39	0.79	1	5
사회적 거리감 - 가족	45,605	3.21	0.97	1	5
사회적 거리감 - 친구	45,605	3.45	0.94	1	5
사회적 거리감 - 이웃	45,605	3.52	0.92	1	5
다문화 정책 필요성	45,605	3.16	0.74	1	5
외국인 이민정책 필요성	45,605	3	0.92	1	5
결혼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정책	45,605	3.33	0.91	1	5
인지된 위협(역코딩)	45,605	2.79	0.96	1	5

위의 논의를 종합하면 서울을 대상으로 사회자본과 다문화 수용성의 기초통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 자본은 평균 1.42의 값을 가져 매우 낮은 값을 가지며, 다문화 수용성은 평균 3.29로 우리의 인식 보다는 비교적 높은 값을 가지고 있으나 보통 수준에 가까운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Putnam(2000)이 제시한 사회자본과 사회적 관용의 모

델에 적용하여 볼 때 1번의 사회, 즉 사회 자본은 낮고 다문화 수용성은 높은 개인주의적 사회에 가까운 편이라고 볼 수 있다¹⁵⁾.

<그림 4> ‘사회 자본과 관용; 4가지 유형의 사회’에 적용



다음 <표 14>는 통제변수의 기술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표 14> 인구학적 특성의 기술통계량

변수명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성별	45,605	0.51	0.5	0	1
연령	45,605	3.78	1.55	1	6
학력	45,605	2.37	0.74	1	4
소득	45,580	4.19	1.46	1	6
지역	45,605	3.29	1.26	1	5

15) Putnam, R. D.(2001) 변형함

Putnam은 사회자본과 사회적 관용(인종, 페미니즘, 사회적 다양성에 관한 관용)의 관계를 묘사 하였으나, 사회 자본과 인종에 관한 관용 즉 다문화 수용성으로 한정하여 적용

제 3 절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변수 차이

1. 성별에 따른 변수 차이

성별에 따라 사회자본과 다문화 수용성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T-test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 자본의 경우,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에 있어서는 여성이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나 연결망의 경우는 남성이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자본의 인식적 측면에서는 여성이, 구조적 특성에서는 남성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다문화 수용성에 있어서는 사회적 거리감과 다문화 정책 필요성에 있어서 남성이 여정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05$). 인지된 위협(역코딩)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 사회 참여가 높은 남성이 노동시장에서 외국인에게 더 큰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성별에 따른 변수 차이

변수		성 별	N	평균	표준 편차	t	df	유의 확률
사회 자본	신뢰	남	22,542	2.88	.633	-4.529	45603	0.000
		여	23,063	2.91	.634			
	호혜성의 규범	남	22,542	1.1044	.27882	-15.95 3	44544 .583	0.000
		여	23,063	1.1503	.33333			
	결속형 연결망	남	22,542	.56	.599	20.402	45086 .057	0.000
		여	23,063	.45	.551			
교량형 연결망	남	22,542	.54	.587	15.369	44984 .011	0.000	
	여	23,063	.46	.534				
다문 화 수용성	사회적 거리감	남	22,542	3.40	.771	1.866	45587 .480	0.062
		여	23,063	3.38	.803			
	다문화 정책 필요성	남	22,542	3.17	.749	1.402	45529 .224	0.161
		여	23,063	3.16	.736			
	인지된 위협	남	22,542	3.31	.935	-3.177	45528 .934	0.001
		여	23,063	3.34	.919			

2. 연령에 따른 변수 차이

사회 자본은 대체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승하고 있다. 신뢰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호혜성의 규범은 40대 그리고 결속형과 교량형 연결망은 50대까지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다가 이후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연령이 많아질수록 사회자본이 축적되는 경향을 보이나 사회자본의 인식적 측면과는 다르게 구조적 측면에 있어서는 노화 등의 신체적 한계로 인하여 쇠퇴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 수용성에 있어서는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인지된 위협에서는 30대가 가장 낮아 일반적인 상식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16> 연령에 따른 변수 차이

변수		연령	N	평균	표준 편차	F	유의 확률
사회 자본	신뢰	10대	3,385	2.87	.644	30.813	0.000
		20대	7,648	2.86	.637		
		30대	9,290	2.87	.629		
		40대	8,838	2.87	.632		
		50대	8,013	2.94	.616		
		60대	8,431	2.94	.645		
	호혜성의 규범	10대	3,385	1.3041	.41099	287.248	0.000
		20대	7,648	1.1003	.26185		
		30대	9,290	1.1202	.28808		
		40대	8,838	1.1402	.32776		
		50대	8,013	1.1242	.32121		
		60대	8,431	1.0796	.25854		
	결속형 연결망	10대	3,385	.13	.349	998.710	0.000
		20대	7,648	.42	.515		
		30대	9,290	.59	.552		
		40대	8,838	.63	.591		
		50대	8,013	.63	.624		
		60대	8,431	.40	.575		

	교량형 연결망	10대	3,385	.09	.299	614.431	0.000
		20대	7,648	.29	.494		
		30대	9,290	.47	.565		
		40대	8,838	.62	.571		
		50대	8,013	.70	.565		
		60대	8,431	.57	.536		
다 문 화 수 용성	사회적 거리감	10대	3,385	3.65	.764	453.058	0.000
		20대	7,648	3.59	.736		
		30대	9,290	3.48	.761		
		40대	8,838	3.39	.772		
		50대	8,013	3.27	.774		
		60대	8,431	3.12	.797		
	다문화 정책 필요성	10대	3,385	3.25	.701	72.167	0.000
		20대	7,648	3.25	.684		
		30대	9,290	3.21	.768		
		40대	8,838	3.15	.747		
		50대	8,013	3.10	.747		
		60대	8,431	3.08	.756		
	인지된 위협	10대	3,385	3.33	.936	0.512	0.767
		20대	7,648	3.32	.924		
		30대	9,290	3.31	.946		
		40대	8,838	3.32	.912		
		50대	8,013	3.33	.919		
		60대	8,431	3.33	.928		

3. 소득에 따른 변수 차이

다음 <표 17>은 소득에 따른 변수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소득이 높을수록 사회 자본은 높아졌다. 이는 다문화 수용성에 있어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유일하게 인지된 위협만이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소득 100만원 이상일 경우, 소득이 증가할수록 위협을 크게 느껴 400-500만원에서 평균 3.29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극 단ちに 위치한 소득 100만원 이하와 500만원 이상의 집단이 가장 적은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표 17> 소득에 따른 변수 차이

변수	소득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회자본	신뢰	100만 미만	1,806	2.85	.659	19.60	0.000
		100-200만 미만	5,110	2.83	.678		
		200-300만 미만	7,488	2.89	.633		
		300-400만 미만	10,822	2.92	.637		
		400-500만 미만	9,035	2.92	.610		
		500만 이상	11,318	2.89	.622		
	호혜성의 규범	100만 미만	1,806	1.0600	.24202	61.53	0.000
		100-200만 미만	5,110	1.1011	.30308		
		200-300만 미만	7,488	1.1022	.28879		
		300-400만 미만	10,822	1.1271	.29933		
		400-500만 미만	9,035	1.1382	.30385		
		500만 이상	11,318	1.1593	.33972		
	결속형 연결망	100만 미만	1,806	.12	.353	335.08	0.000
		100-200만 미만	5,110	.38	.561		
		200-300만 미만	7,488	.44	.560		
		300-400만 미만	10,822	.52	.573		
		400-500만 미만	9,035	.58	.576		
		500만 이상	11,318	.60	.592		
	교량형 연결망	100만 미만	1,806	.23	.431	145.21	0.000
		100-200만 미만	5,110	.44	.550		
		200-300만 미만	7,488	.47	.555		
		300-400만 미만	10,822	.49	.552		
		400-500만 미만	9,035	.54	.559		
		500만 이상	11,318	.57	.584		
다문화수용성	사회적 거리감	100만 미만	1,806	3.15	.914	76.90	0.000
		100-200만 미만	5,110	3.32	.818		
		200-300만 미만	7,488	3.36	.778		
		300-400만 미만	10,822	3.40	.757		
		400-500만 미만	9,035	3.38	.745		
		500만 이상	11,318	3.48	.806		

다문화 정책 필요성	100만 미만	1,806	2.99	.811	29.44	0.000
	100-200만 미만	5,110	3.12	.753		
	200-300만 미만	7,488	3.16	.739		
	300-400만 미만	10,822	3.18	.740		
	400-500만 미만	9,035	3.16	.726		
	500만 이상	11,318	3.20	.739		
인지된 위협	100만 미만	1,806	3.35	.935	10.36	0.000
	100-200만 미만	5,110	3.38	.915		
	200-300만 미만	7,488	3.32	.927		
	300-400만 미만	10,822	3.30	.931		
	400-500만 미만	9,035	3.29	.923		
	500만 이상	11,318	3.35	.928		

4. 학력에 따른 변수 차이

신뢰의 경우 고졸이하, 중졸이하·대졸이하, 대학원 이상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Levene 등분산 검정결과 집단 간 분산의 동질성이 가정되지 않아 Dunnett T3 검정을 실시한 결과, 대학원 이상과 나머지 집단의 차이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혜성의 규범은 대학원 이상, 고졸이하, 대졸 이하, 중졸이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속형 연결망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았으며, 교량형 연결망은 대학원 이상, 고졸 이하, 대졸 이하, 중졸 이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호혜성의 규범, 결속형 연결망, 교량형 연결망의 경우에는 비교적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나, 신뢰의 경우에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문화 수용성에 있어서는 사회적 거리감과 다문화 정책 필요성의 경우에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인지된 위협의 경우 대학원 이상, 중졸 이하, 고졸 이하·대졸이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양 극단의 집단이 위협을 가장 적게 느꼈다. Levene 등분산 검정결과, 집단 간 분산이 동일한 것으로 판명되어 Scheffe 검정을 실시하였더니 대학원 이상의 집단과 나머지 집단의 차이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 18> 학력에 따른 변수의 차이

변수		학력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 확률
사 회 자 본	신뢰	중졸이하	6,375	2.89	.658	10.201	0.000
		고졸이하	16,863	2.90	.640		
		대졸이하	21,568	2.89	.621		
		대학원 이상	800	2.78	.621		
	호혜성의 규범	중졸이하	6,375	1.0972	.28197	79.80	0.000
		고졸이하	16,863	1.1424	.32522		
		대졸이하	21,568	1.1204	.29354		
		대학원 이상	800	1.2498	.45801		
	결속형 연결망	중졸이하	6,375	.27	.494	579.25	0.000
		고졸이하	16,863	.48	.582		
		대졸이하	21,568	.59	.573		
		대학원 이상	800	.72	.625		
	교량형 연결망	중졸이하	6,375	.46	.522	29.80	0.000
		고졸이하	16,863	.53	.560		
		대졸이하	21,568	.49	.572		
		대학원 이상	800	.56	.640		
다 문 화 수 용 성	사회적 거리감	중졸이하	6,375	3.12	.830	573.88	0.000
		고졸이하	16,863	3.32	.782		
		대졸이하	21,568	3.51	.748		
		대학원 이상	800	3.80	.767		
	다문화 정책 필요성	중졸이하	6,375	3.04	.760	152.33	0.000
		고졸이하	16,863	3.12	.753		
		대졸이하	21,568	3.23	.719		
		대학원 이상	800	3.40	.784		
	인지된 위협	중졸이하	6,375	3.33	.932	16.04	0.000
		고졸이하	16,863	3.32	.926		
		대졸이하	21,568	3.32	.926		
		대학원 이상	800	3.55	.904		

5. 지역에 따른 변수 차이

다음 <표 19>는 지역에 따른 변수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Levene 등분산 검정결과 집단 간 분산의 동질성이 가정되지 않아 Dunnett T3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자본의 경우, 평균적으로 도심권이 상위를 동북권이 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신뢰는 도심권·동남권, 서남권, 동북권, 서북권 순으로 높았으며, 결속형 연결망은 도심권, 동남권·서남권·서북권·동북권 순으로 높았다. 교량형 연결망은 서북권·도심권, 서남권, 동북권·동남권 순으로 높았다.

다문화 수용성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서남권, 서북권, 동남권, 동북권, 도심권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사회적 거리감은 동남권·서남권, 서북권, 도심권·동북권 순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다문화 정책 필요성은 동남권, 서남권, 동북권, 서북권, 도심권 순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인지된 위협의 경우, 두 하위요소와 조금 다른 측면을 보이는데 서북권, 동북권·서남권, 도심권, 동남권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서남권의 경우(125,768명) 다문화 수용성이 가장 높았는데, 이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접촉시설의 긍정적 영향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다. 특이한 점은 서남권과 함께 높은 다문화 수용성을 보이고 있는 서북권(23,705명)과 동남권(23,556명)은 거주 외국인 수가 매우 적은 지역이라는 것이다. 원숙연(2011)은 외국인의 거주 규모가 큰 지역이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면서 접촉의 빈도보다는 접촉의 질이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 한 바 있다.

<표 19> 지역에 따른 변수의 차이

변수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회 자본	신뢰	도심권	2,284	2.98	.625	91.984	.000	
		동북권	14,851	2.87	.624			
		서북권	5,324	2.78	.601			
		서남권	13,456	2.90	.642			
		동남권	9,688	2.96	.645			
	호혜성의 규범	도심권	2,284	1.1364	.31700	9.873	.000	
		동북권	14,851	1.1219	.29940			
		서북권	5,324	1.1498	.33988			
		서남권	13,456	1.1220	.30026			
	결속형 연결망	도심권	2,284	.60	.565	34.726	.000	
		동북권	14,851	.47	.581			
		서북권	5,324	.50	.556			
		서남권	13,456	.52	.578			
		동남권	9,688	.54	.583			
	교량형 연결망	도심권	2,284	.54	.589	39.832	.000	
		동북권	14,851	.48	.556			
서북권		5,324	.57	.570				
서남권		13,456	.50	.565				
다문 화수 용성	사회적 거리감	도심권	2,284	3.31	.730	102.807	.000	
		동북권	14,851	3.30	.776			
		서북권	5,324	3.39	.908			
		서남권	13,456	3.44	.760			
		동남권	9,688	3.48	.768			
	다문화 정책 필요성	도심권	2,284	2.98	.756	98.991	.000	
		동북권	14,851	3.14	.699			
		서북권	5,324	3.07	.832			
		서남권	13,456	3.20	.727			
	인지된 위협	도심권	2,284	3.29	.905	78.511	.000	
		동북권	14,851	3.34	.904			
		서북권	5,324	3.47	.986			
		서남권	13,456	3.34	.920			
			동남권	9,688	3.20	.928		

제 4 절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회귀분석에 앞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존재여부와 상관관계의 여부, 방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상관계수는 모두 0.9이하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표 20> 변수 간 상관관계

	신뢰	호혜성	교량형 연결망	결속형 연결망	사회적 거리감	다문화 정책 필요성	인지 된 위협
신뢰	1						
호혜성	.003	1					
교량형 연결망	.029**	.028**	1				
결속형 연결망	.014**	.061**	.171**	1			
사회적 거리감	.044**	.043**	-.028**	.004	1		
다문화 정책 필요성	.103**	.018**	.007	.019**	.365**	1	
인지된 위협	-.066**	.031**	-.003	-.040**	-.049**	-.163**	1

**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제 5 절 가설검증

사회 자본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모든 변수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사회자본과 다문화 수용성 종합지수의 관계 (가설 1,2,3,4 검증)

가장 먼저 사회자본과 다문화 수용성의 하위요소인 사회적 거리감, 다문화 정책 필요성, 인지된 위협을 합한 다문화 수용성 종합지수의 관계를 통해 사회자본과 다문화 수용성의 개략적인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성별은 남성을 0, 여성을 1로 더미변수화 하였다. 지역은 서울의 5개 생활권을 동남권을 기준으로 더미변수화 하였다. 모델의 설명력은 4.6% ($R^2=.046$, $F=168.876$)이었으며, 유의확률은 $p=.000$ 이었다.

신뢰의 경우 사회신뢰는 정(+)의 영향을 주지만($t=12.905$, $\beta=.042$, $p<.05$), 공공기관 신뢰는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4.595$, $\beta=-.022$, $p<.05$). 따라서 가설 1.1은 채택하지만 1.2은 기각되었다. 사회신뢰가 다문화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선행연구인 Herreros, Criado(200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반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jern(200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나 국내 연구인 장임숙·이원일(2012)과는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하여 장임숙·이원일(2012)은 연구 결과로 정치신뢰가 부(-)의 영향을 미침을 제시하면서, 정치 신뢰가 높을수록 보수 성향일 가능성이 높고, 보수 성향일수록 다문화 인식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추론을 제시한 바 있다. 공공기관 신뢰가 높을수록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여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다문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변화를 촉구하기 보다는 현재의 상황에 만족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그 관계에 대해 정확한 인과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

호혜성의 규범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8.007$, $\beta=.037$, $p<.05$). 따라서 가설 2를 채택한다. 이는 황정미(2010)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즉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행위, 즉각의 보답을 바라지 않고도 장기적으로 보상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호혜적 행위를 많이 할수록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결망의 경우, 가설처럼 연결망의 성격에 따라 다문화 수용성에 차별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형 연결망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t=2.707$, $\beta=.013$, $p<.05$), 결속형 연결망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t=-6.883$, $\beta=-.033$, $p<.05$). 따라서 가설 3과 가설 4가 채택되었다. 이는 금희조(2011)와 Howe(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교량형 연결망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자유롭게 교류하면서 타인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외국인에 대한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결속형 연결망을 통해서는 외집단에 대한 집단적 배타성이 강해질 수 있어 다문화 수용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제변수를 보면 기존의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지지하고 있다. 즉 여성일수록, 연령이 어릴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을 살펴보면 동남권을 기준으로 도심권과 동북권이 (-), 서남권과 서북권이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사회자본과 다문화 수용성 종합지수의 관계

변수		B	표준오차	β	t	p값	
상수		3.075	.020		153.62 2	.000	
사회 자 본	신 뢰	사회신뢰	.042	.003	.062***	12.905	.000
		공공기관 신뢰	-.013	.003	-.022***	-4.595	.000
	호혜성의 규범		.059	.007	.037***	8.007	.000
	교량형 연결망		.012	.004	.013**	2.707	.007
	결속형 연결망		-.028	.004	-.033***	-6.883	.000
	성별 ^{a)}		.018	.005	.019***	4.028	.000
개 인 적 특 성	연령		-.033	.002	-.105***	-19.27 8	.000
	학력		.074	.004	.111***	20.546	.000
	소득		.005	.002	.016**	3.313	.001
	지 역 ^{b)}	도심권	-.094	.011	-.042***	-8.450	.000
		동북권	-.029	.006	-.028***	-4.597	.000
		서북권	.025	.008	.016**	3.036	.002
		서남권	.041	.006	.038***	6.312	.000
	R=.214, R²=.046, 수정된 R²=0.046, F=168.876, p=.000						

a) 0=남성, 1=여성; b) 동남권을 중심으로 생활권별 더미변수화
 주: * p<.1, **p<.05, *** p<.001 (이하 동일)

2. 사회자본과 사회적 거리감의 관계 (가설 1.1.1, 1.2.1, 2.1, 3.1, 4.1 검증)

사회자본과 다문화 수용성의 하위요소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그 영향 관계를 더 자세히 파악해보고자 한다. 먼저 사회자본과 사회적 거리감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모델의 설명력은 4.6%(R²=.046, F=168.876)이며, 유의확률은 p=.000이다. 다문화 수용성의 하위요소 중 사회적 거리감은, 사회자본과 다문화 수용성의 종합지수와 가장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사회신뢰, 호혜성의 규범, 교량형 연결망은 정(+)의 영향을, 공공기관 신뢰, 결속형 연결망은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뢰의 경우 역시 사회신뢰는 정(+)의 영향을($t=14.259$, $\beta=.068$, $p<.05$), 공공기관 신뢰는 (-)의 영향을 미쳤다($t=-3.222$, $\beta=-.015$, $p<.05$). 호혜성의 규범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4.799$, $\beta=.022$, $p<.05$). 교량형 연결망은 정(+)의 영향을 주고 있다($t=2.194$, $\beta=.011$, $p<.05$). 결속형 연결망은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2.826$, $\beta=-.014$, $p<.05$). 따라서 가설 1.1.1, 가설 2.1, 가설 3.1, 가설 4.1을 채택하고, 가설 1.2.1을 기각한다.

<표 22> 사회자본과 사회적 거리감의 관계

변수		B	표준오차	β	t	p값	
상수		3.202	.032		100.900	.000	
사회자본	신뢰	사회신뢰	.073	.005	.068***	14.259	.000
		공공기관 신뢰	-.014	.004	-.015**	-3.222	.001
	호혜성의 규범	.056	.012	.022***	4.799	.000	
	교량형 연결망	.015	.007	.011**	2.194	.028	
	결속형 연결망	-.018	.007	-.014**	-2.826	.005	
개인적 특성	성별 ^{a)}		.021	.007	.013**	2.891	.004
	연령		-.083	.003	-.163***	-30.351	.000
	학력		.123	.006	.115***	21.599	.000
	소득		.008	.003	.015**	3.195	.001
	지역 ^{b)}	도심권	-.127	.018	-.035***	-7.203	.000
		동북권	-.141	.010	-.084***	-14.055	.000
		서북권	-.043	.013	-.018**	-3.298	.001
		서남권	-.001	.010	-.001	-.090	.928
$R=.214$, $R^2=.046$, 수정된 $R^2=0.046$, $F=168.876$, $p=.000$							

a) 0=남성, 1=여성; b) 동남권을 중심으로 생활권별 더미변수화

3. 사회자본과 다문화정책 필요성의 관계

(가설 1.1.2, 1.2.2, 2.2, 3.2, 4.2 검증)

1) 사회자본과 다문화정책 필요성의 관계

사회자본과 다문화 정책 필요성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모델의 설명력은 4.6%($R^2=.031$, $F=113.718$)이며, 유의확률은 $p=.000$ 이다.

신뢰의 경우 역시 사회신뢰는 정(+)의 영향을($t=18.886$, $\beta=.092$, $p<.05$), 공공기관 신뢰 역시 정(+)의 영향을 미쳤다($t=6.215$, $\beta=.30$, $p<.05$). 호혜성의 규범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beta=.009$),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05$). 교량형 연결망은 정(+)의 영향을 주고 있다($t=4.352$, $\beta=.009$, $p<.05$). 결속형 연결망 역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beta=.21$)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05$). 즉 사회자본과 다문화 정책 필요성의 관계에서 사회자본의 모든 하위 구성요소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신뢰, 공공기관 신뢰, 교량형 연결망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호혜성의 규범과 결속형 연결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1.1.2, 가설 1.2.2, 가설 3.2,을 채택하고 가설 2.2, 가설 4.2을 기각한다.

<표 23> 사회자본과 다문화정책 필요성의 관계

변수		B	표준오차	β	t	p값	
상수		2.792	.031		91.371	.000	
사회자본	신뢰	사회신뢰	.093	.005	.092***	18.866	.000
		공공기관 신뢰	.026	.004	.030***	6.215	.000
	호혜성의 규범	.021	.011	.009	1.834	.067	
	교량형 연결망	.028	.007	.021***	4.352	.000	
	결속형 연결망	.008	.006	.006	1.199	.231	
	개성별 ^{a)}	.009	.007	.006	1.271	.204	
인연령	-.031	.003	-.066***	-11.981	.000		

적 특 성	학력	.065	.005	.065***	11.873	.000	
	소득	.003	.003	.006	1.179	.238	
	지 역 b)	도심권	-.253	.017	-.074***	-14.857	.000
		동북권	-.079	.010	-.050***	-8.188	.000
		서북권	-.135	.013	-.058***	-10.716	.000
		서남권	-.020	.010	-.012	-2.003	.045
R=.177, R²=.031, 수정된 R²=0.031, F=113.718, p=.000							

a) 0=남성, 1=여성; b) 동남권을 중심으로 생활권별 더미변수화

2) 사회자본과 외국인 이민정책 필요성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정책 필요성을 ‘외국인 이민정책’과 ‘결혼 이주자 사회편견 해소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지를 묻는 두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가 0.488로 나와 0.6을 넘지 못해 분석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을 느꼈다. 따라서 ‘외국인 이민정책 필요성’과 ‘결혼 이주자 사회편견 해소 정책 필요성’에 사회자본이 미치는 영향을 각각 살펴보았는데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자본과 외국인 이민정책 필요성의 관계는 다음 <표 23>과 같다. 모델의 설명력은 3.4%($R^2=.034$, $F=122.790$)이며, 유의확률은 $p=.000$ 이다.

신뢰의 경우 역시 사회신뢰는 정(+)의 영향을($t=23.906$, $\beta=.116$, $p<.05$),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신뢰($\beta=-.005$), 호혜성의 규범($\beta=-.004$).과 교량형 연결망($\beta=-.002$)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05$)

반면 결속형 연결망은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9.352$, $\beta=.046$, $p<.05$). 즉 사회자본과 외국인 이민정책 필요성의 관계에서는 사회신뢰와 결속형 연결망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특이한 점은 결속형 연결망이 정(+)의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예측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외국인 이민정책 필요성을 측정하게 위하여 서울 서베이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때 ‘인구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란 단서가 붙은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연결망의 성격과 무관하게, 국내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하여 긍정적으로 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 가지 더 생각하여 볼 점은 결속형 연결망 역시 사회 참여의 일종으로서 Putnam(2001)이 제시한 것처럼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더욱이 내부 공동의 목표를 중시하는 성격을 지닌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국내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24> 사회자본과 외국인 이민정책 필요성의 관계

변수		B	표준오차	β	t	p값
상수		2.761	.038		73.076	.000
사 회 신 뢰	사회신뢰	.146	.006	.116***	23.906	.000
	공공기관 신뢰	-.005	.005	-.005	-1.026	.305
자 본	호혜성의 규범	-.011	.014	-.004	-.793	.428
	교량형 연결망	-.003	.008	-.002	-.397	.691
	결속형 연결망	.073	.008	.046***	9.352	.000
개 인 적 특 성	성별 ^{a)}	-.013	.009	-.007	-1.453	.146
	연령	-.041	.003	-.070***	-12.750	.000
	학력	.018	.007	.015**	2.723	.006
	소득	.012	.003	.019***	3.819	.000
지 역 ^{b)}	도심권	-.273	.021	-.065***	-12.969	.000
	동북권	-.171	.012	-.087***	-14.314	.000
	서북권	-.212	.016	-.074***	-13.629	.000
	서남권	-.036	.012	-.018**	-2.981	.003
R=.184, R²=.034, 수정된 R²=0.034, F=122.790, p=.000						

a) 0=남성, 1=여성; b) 동남권을 중심으로 생활권별 더미변수화

3) 사회자본과 결혼 이주자 사회편견 해소 정책 필요성의 관계

사회자본과 이주자 사회편견 해소정책 필요성의 관계는 다음 <표 24>와 같다. 모델의 설명력은 4.6%($R^2=.021$, $F=75.213$)이며, 유의확률은 $p=.000$ 이다.

신뢰의 경우 역시 사회신뢰는 정(+)의 영향을($t=6.656$, $\beta=.032$, $p<.05$), 공공기관 신뢰 역시 정(+)의 영향을 미쳤다($t=11.161$, $\beta=.54$, $p<.05$). 호혜성의 규범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3.788$, $\beta=.018$, $p<.05$). 교량형 연결망은 정(+)의 영향을 주고 있다($t=7.492$, $\beta=.037$, $p<.05$). 결속형 연결망은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7.469$, $\beta=.037$, $p<.05$). 즉 사회신뢰, 공공기관신뢰, 호혜성의 규범, 교량형 연결망은 정(+)의 영향을, 결속형 연결망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가설과 가장 흡사한 결과이다. 흥미로운 점은 앞서 ‘외국인 이민정책 필요성’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결속형 연결망이 다시 ‘결혼 이주자 사회편견 해소정책 필요성’에 있어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 이민정책의 정책을 국내의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보아 그 정책의 혜택 대상자를 내국인으로 보고, 결혼 이주자 사회편견 해소정책의 대상자를 외국인으로 보았기 때문에 차별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예상이 가능하다. 즉 결속형 연결망의 경우, 집단 내부의 공동의 목표 그리고 결속력을 중시하는 네트워크로서, 다문화 사회에 있어서도 정책의 혜택이 누구에게 갈 것인가에 민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결혼 이주자 사회 편견 해소정책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결속형 연결망이 외부 집단에게 지니는 배타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표 25> 사회자본과 결혼 이주자 사회편견 해소정책 필요성의 관계

변수		B	표준오차	β	t	p값	
상수		2.823	.038		75.263	.000	
사회자본	신뢰	사회신뢰	.040	.006	.032***	6.656	.000
		공공기관 신뢰	.057	.005	.054***	11.161	.000
	호혜성의 규범	.052	.014	.018***	3.788	.000	
	교량형 연결망	.060	.008	.037***	7.492	.000	
	결속형 연결망	-.057	.008	-.037***	-7.469	.000	
	개인적 특성	성별 ^{a)}	.030	.009	.017***	3.535	.000
연령		-.022	.003	-.037***	-6.676	.000	
학력		.111	.007	.091***	16.603	.000	
소득		-.006	.003	-.010	-1.926	.054	
지역 ^{b)}		도심권	-.233	.021	-.056***	-11.143	.000
		동북권	.013	.012	.007	1.080	.280
		서북권	-.058	.015	-.020***	-3.730	.000
		서남권	-.003	.012	-.002	-.261	.794
R=.145, R²=.021, 수정된 R²=0.021, F=75.213, p=.000							

a) 0=남성, 1=여성; b) 동남권을 중심으로 생활권별 더미변수화

4. 사회자본과 인지된 위협의 관계

(가설 1.1.3, 1.2.3, 2.3, 3.3, 4.3 검증)

인지된 위협은 ‘이민자가 많아질수록 나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이다’라는 설문을 통해 측정되었으나, 자료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역코딩하여 값이 커질수록 위협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사회자본과 인지된 위협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모델의 설명력은 1.4%($R^2=.014$, $F=49.936$)이며, 유의확률은 $p=.000$ 이다.

신뢰의 경우 역시 사회신뢰는 부(-)의 영향을($t=-6.602$, $\beta=-.032$,

$p < .05$), 공공기관 신뢰 역시 부(-)의 영향을 미쳤다($t = -9.448$, $\beta = -.046$ $p < .05$). 호혜성의 규범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 = 7.082$, $\beta = .033$ $p < .05$). 교량형 연결망은 부(-)의 영향을 주고 있으나($\beta = -.005$)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결속형 연결망은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 = -9.362$ $\beta = .046$ $p < .05$). 따라서 가설 1.1.3, 가설 1.2.3, 가설 3.3을 기각하며 가설 2.3, 가설 4.3을 채택한다. 즉 사회자본과 인지된 위협(역코딩)의 관계에서 사회신뢰, 공공기관의 신뢰, 결속형 연결망은 부정적인 영향을 호혜성의 규범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인지된 위협과의 관계에서 사회신뢰와 공공기관 신뢰 모두 부(-)의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신뢰의 경우 다문화 수용성 종합지수와 사회적 거리감에서 이미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 신뢰의 경우에는 인지된 위협과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Herreros, Criado(2009)는 신뢰의 간접적 영향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를 신뢰할수록 외국인에게 느끼는 위협이 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또한 기존의 ‘신뢰’에 대한 인식과 완전히 대치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사회신뢰가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감은 가까워졌으며 다문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일자리는 위협받는다고 느끼고 있다. 이 결과만을 놓고 보았을 때 이에 대한 추측은 다음과 같다. 사회를 신뢰할수록 다른 사람들 역시 나의 기대 혹은 사회적 규범에 맞게 행동할 것이라 여기게 되어, 외국인이 노동시장에서 합당하게 대우받을 것이라 믿게 된다. 또한 외국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보단 긍정적으로 느끼게 되면서 노동시장에서 경쟁자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외국인에게 느끼는 일자리 위협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연구대상이 서울이라는 점에서 높은 직급의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소득에 따른 인지된 위협을 보면, 소득이 400-500만 원 이상인 계층이 가장 큰

위협을 느끼고 있어 저소득층이 외국인에게 큰 위협을 느낄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

통제변수인 연령 역시 다문화 수용성의 하위 요소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다른 요소들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결과값이 낮아져 연령이 낮을수록 개방적인 태도로 인해 다문화 수용성이 높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인지된 위협의 경우에는, 연령과 인지된 위협(역코딩)이 부(-)의 관계로 나타나 오히려 연령이 어릴수록 외국인에게 일자리 위협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격적으로 취업시장에 진입한 20대와 진입을 앞두고 있는 10대들이 외국인을 노동시장의 경쟁자로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6> 사회자본과 인지된 위협의 관계

변수		B	표준오차	β	t	p값	
상수		3.231	.038		83.961	.000	
사회자본	신뢰	사회신뢰	-.041	.006	-.032***	-6.602	.000
		공공기관신뢰	-.049	.005	-.046***	-9.448	.000
	호혜성의 규범	.100	.014	.033***	7.082	.000	
	교량형 연결망	-.009	.008	-.005	-1.042	.298	
	결속형 연결망	-.074	.008	-.046***	-9.362	.000	
개인적 특성	성별 ^{a)}	.026	.009	.014**	2.892	.004	
	연령	.015	.003	.025***	4.461	.000	
	학력	.033	.007	.026***	4.822	.000	
	소득	.005	.003	.008	1.599	.110	
	지역 ^{b)}	도심권	.098	.021	.023***	4.551	.000
		동북권	.133	.012	.067***	10.920	.000
		서북권	.253	.016	.088***	15.967	.000
		서남권	.143	.012	.070***	11.515	.000
R=.119, R²=.014, 수정된 R²=0.014, F=49.936, p=.000							

a) 0=남성, 1=여성; b) 동남권을 중심으로 생활권별 더미변수화

5. 종합적 논의

이상의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한 것이 다음 <표 26> 이다. 사회자본과 다문화 수용성의 하위요소와의 관계를 표준화된 계수 β 로 나타내었다.

<표 27> 회귀분석의 종합적인 결과

			다문화 수용성 종합	사회적 거리감	다문화정책 필요성			인지된 위협(역 코딩)
					종합	이민 정책	편견해 소정책	
(상수)								
독립변수	신뢰	사회 신뢰	.062***	.068***	.092***	.116***	.032***	-.032***
		공공기 관신뢰	-.022***	-.015**	.030***	-.005	.054***	-.046***
	호혜성의 규범		.037***	.022***	.009	-.004	.018***	.033***
	교량형 연결망		.013**	.011**	.021***	-.002	.037***	-.005
	결속형 연결망		-.033***	-.014**	.006	.046***	-.037***	-.046***
통제변수	성별 ^{a)}		.019***	.013**	.006	-.007	.017***	.014**
	연령		-.105***	-.163***	-.066***	-.070***	-.037***	.025***
	학력		.111***	.115***	.065***	.015**	.091***	.026***
	소득		.016**	.015**	.006	.019***	-.010	.008
	지역 ^{b)}	도심권	-.042***	-.035***	-.074***	-.065***	-.056***	.023***
		동북권	-.028***	-.084***	-.050***	-.087***	.007	.067***
		서북권	.016**	-.018**	-.058***	-.074***	-.020***	.088***
		서남권	.038***	-.001	-.012	-.018**	-.002	.070***

a) 0=남성, 1=여성; b) 동남권을 중심으로 생활권별 더미변수화
주: * p<.1, **p<.05, *** p<.001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사회 신뢰, 호혜성의 규범, 교량형 연결망은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공공기관 신뢰와 결속형 연결망은 다문화 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설정했던 가설과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 신뢰가 다문화 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다문화 정책 필요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사회적 거리감과 인지된 위협과는 부정적인 관계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채택, 기각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표 28> 가설 검정

구분	가설	채택 여부
1	신뢰가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1	사회신뢰가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1.1	사회신뢰가 사회적 거리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1.2	사회신뢰가 다문화정책 필요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1.3	사회신뢰가 인지된 위협에 부정적인(-)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1.2	기관신뢰가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1.2.1	기관신뢰가 사회적 거리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1.2.2	기관신뢰가 다문화 정책 필요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2.3	기관신뢰가 인지된 위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	호혜성의 규범이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1	호혜성의 규범이 사회적 거리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2	호혜성의 규범이 다문화정책 필요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3	호혜성의 규범이 인지된 위협에 부정적인(-)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	교량형 연결망이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1	교량형 연결망이 사회적 거리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2	교량형 연결망이 다문화정책 필요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3.3	교량형 연결망이 인지된 위협에 부정적인(-)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4	결속형 연결망이 다문화 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4.1	결속형 연결망이 사회적 거리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4.2	결속형 연결망이 다문화정책 필요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4.3	결속형 연결망이 인지된 위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주: * p<.1, **p<.05, *** p<.001

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 요약 및 의의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사회자본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사회 자본을 신뢰, 호혜성의 규범, 교량형 연결망, 결속형 연결망으로 다문화 수용성을 사회적 거리감, 다문화 정책 필요성, 인지된 위협으로 구성하여 그 관계를 분석하였다. 기존의 이론과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신뢰, 호혜성의 규범, 교량형 연결망은 긍정적인 기제로서 작동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 기능이 내집단의 경계를 넘어 외집단의 구성원인 외국인을 인식함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을지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반면 결속형 연결망은 이슈에 따라 긍정적인 역할인가 부정적인 역할인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나, 기존의 단일 민족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내부 집단의 결속력을 중시하고 외부 집단에게는 배타적인 성향을 보이는 결속형 연결망의 성격이 다문화 수용성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의 사회 자본은 매우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다문화 수용성은 예상보다는 높게 측정되었으나 보통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Putnam이 제시한 모델 중 사회 자본은 낮고, 다문화 수용성은 비교적 높은 ‘개인주의적 사회’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변수의 기초통계를 살펴본 결과, 대체적으로 여성일수록, 연령이 어릴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지역적으로는 외국인의 거주 규모가 가장 큰 서남권이 다문화 수용성이 가장 높아 접촉 가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외국인 다수 거주하고

있는 도심권은 가장 낮은 다문화 수용성을 보여주었으며, 외국인의 거주 규모가 작고 외국인 거주자의 별다른 특성을 찾기 어려운 동남권과 서북권이 높은 다문화 수용성을 보여주고 있어 접촉의 빈도 뿐 만 아니라 접촉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사회자본의 인지적 요소와 구조적 요소가 각각 다른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여성의 경우는 인지적 요소로 볼 수 있는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이 높았으나, 남성은 구조적 요소로 볼 수 있는 교량형 연결망과 결속형 연결망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자본의 인지적 요소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구조적 요소는 약 50대에 이르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사회자본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신뢰, 호혜성의 규범, 교량형 연결망은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공공기관 신뢰, 결속형 연결망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Herreros & Criado(2009)는 사회신뢰의 사회 접촉제 기능이 같은 배경을 중심으로 한 내집단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집단을 수용함에 있어서도 적용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역시 이를 지지하고 있으며 사회를 신뢰할수록 외국인에 대해 자유롭게 교류하고자 하며 다문화 사회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호혜성의 규범 역시 다문화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황정미(2010)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도덕적 규범, 타인을 위한 호혜적 행위는 다문화를 수용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호혜성의 규범을 자원봉사의 참여 정도로 측정하였는데 Cote & Erickson (2009)이 지적하였듯이 공공의 문제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 학습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리라 예측할 수 있다. 교량형 연결망이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금희조(2011)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질적이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타인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으며, 타 집단과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외국인 집단과의 관

계를 허용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결속형 연결망은 집단 내부의 결속력을 중시하고 외부 집단에게 배타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외국인 집단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부분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공공기관 신뢰는 다문화 수용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신뢰가 높을수록 현재의 상황에 만족할 가능성이 크고 다문화 사회로의 진전 등 상황의 변화를 필요하다고 인식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예측하여 보았으나, 후속 연구를 통해 그 관계를 더욱 엄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다문화 수용성의 하위요소의 특징에 따라 사회자본이 미치는 영향이 조금씩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결속형 연결망이 “국내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민정책의 필요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결혼 이주자 사회 편견 해소 정책 필요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집단 내부의 이익을 중시하는 성격의 결속형 연결망은 이민 정책이 국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란 단서가 붙었을 때 다문화 정책 필요성과 긍정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으나, 다문화 정책의 혜택 대상자가 외국인 집단이면서도 사회적으로 비교적 많은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결혼 이주자일 경우에는 다문화 정책 필요성에 부정적인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사회신뢰, 호혜성의 규범 그리고 교량형 연결망은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그리고 결속형 연결망은 다문화 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기존의 다문화 수용성을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 자본이라는 이론틀을 통해 새롭게 바라보았다는 의의를 지닌다.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다문화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일방적인 정책 시행보다는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을 중심으로 인식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의 기존 다문화 정책이 진정한 ‘다’문화 정책인가에 대해 의문을 품어본다. 외국인의 보편적 권리를 보호하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자유로운 교류를 증진시키기 보다는 한국 문화로의 일방적인 흡수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기존의 한국인 집단이 보유하고 있는 사회 자본이 외국인 집단을 인식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 사회로의 진전에 있어서도 사회 자본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졌던 다문화 수용성의 부정적 기제를 함께 제시하였다. 한국의 학연 지연 등을 중심으로 한 결속형 연결망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류석춘(2008)은 결속형 연결망이 한국의 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하였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지니는 배타성이 다문화 사회에서는 부정적 기제로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결속형 연결망이 다문화 사회에 끼칠 수 있는 악영향을 조절하고, 그것이 지니는 목표 추구, 구성원 이익 함양을 등의 긍정적 기제를 증진 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서울은 사회 자본이 비교적 낮고 다문화 수용성은 보통의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자본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 자본의 구성요소에 따라서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따라서 사회 자본의 긍정적 기제를 촉진하여 사회 자본과 다문화 수용성이 모두 높은 ‘시민적 공동체’ 사회로 변화할 수 있음을 기대하는 바이다.

제 2 절 연구 한계 및 앞으로의 연구 방향

본 연구에서 미흡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자료를 사용함에 따라 변수의 측정이 자유롭지 못했던 점이다. 사회 자본과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다양한 설문을 통해 측정을 하지 못한 것이 한계이다. 특히 연결망의 측정에 있어서 참여의 빈도나 강도를 측정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다문화 수용성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 꼽았던 민족 정체성이나 정치 성향 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면 사회 자본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에 대해 더욱 명확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연구대상이 서울로 한정되었으며, 횡단면적인 자료를 사용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서울의 경우 외국인의 거주 규모가 크고, 다양한 직업군의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반면 타 지역은 아직까지 결혼 이주자 혹은 노동 이주자들의 거주가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수용성의 양상이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기에 적용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서울서베이는 해마다 다른 설문 문항을 사용하고 있어 2011년도 데이터만을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셋째, 분석기법 면에서 더욱 엄밀한 방법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로 지역을 5개의 생활권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구 별로 외국인의 거주 규모와 출신국이 다양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구 별 특성을 통제하였다면 더욱 다양한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을 것이라 예상된다. 선형적 위계모형(HLM)을 이용하여 개인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으로 분석이 가능하다면 더욱 엄밀한 분석이 가능해 질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사회자본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모두 다루다 보니, 논점의 방향이 다소 흐려졌다는 점이다. 또한 독립변수인 사회 자본을 중점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후속연구를 통해 다문화 수용성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소랑·문상호. (2012). 가족관계 사회자본이 중, 고령자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46(3): 271-298.
- 권영숙·이영민. (2011).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특성 유형과 사회적 자본 형성의 관계 분석. 「지방행정연구」, 25(1): 137-156.
- 권태형·박종화. (2010). 사회적 자본이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분석. 「지방정부연구」, 14(3): 97-116.
- 금희조. (2011). 소셜 미디어 이용과 다문화에 대한 관용 : 교량형 사회 자본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5(4): 162-186.
- 기영화. (2013). 지방정부 노인일자리 사업의 사회적 자본 효과 탐색: 근거이론. 「지방정부연구」, 17(1): 165-295.
- 김기홍·허태영. (2012). 사회 자본을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한 다문화 사회 구축방안 연구. 「농촌사회」, 22(1): 89-131.
- 김석호·신인철·하상응·정기선. (2013). 지식공간이론을 이용한 사회적 거리감 척도의 한국사회에서의 적용가능성. 「한국인구학」, 36(1): 1-20.
- 김우식. (2006). 연결망, 불평등, 위법행동 : 비도덕성을 생성하는 사회적 자본. 「한국사회학」, 40(5): 29-60.
- 김이선. (2007).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I):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정책과제.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정훈·임안나. (2010).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적 자본의 수준과 증진방안. 「현대사회와 행정」, 20(3): 51-87.
- 김형빈·이진석. (2011). 부산지역 화교의 사회연결망 특성변화와 사회자본의 형성. 「지방정부연구」, 14(4): 129-148.

- 나은경. (2007). 다양성에 기초한 민주주의: 온라인 사회연결망 이질성 인식 수준에 따른 다양성과 민주적 시민태도의 다면적 관계. 「한국언론학보」, 51(6): 163-501.
- 남궁근. (2007). 사회자본의 형성과 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의 쟁점. 「정부학연구」, 13(4): 297-325.
- 노지영. (2012). SNS 이용목적이 온라인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6(2): 261-281.
- 도수관. (2012). 지식정보사회에서 사회자본과 창의적 기업가정신과의 관계, 젠더, 교육수준, OECD 회원국 여부에 따른 집단구분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6(4): 357-388.
- 류석춘·장미혜·전상인·정병은·최우영·최종렬. (2008). 한국의 사회자본. 백산출판사.
- 맹진학. (2009). 한국인의 다문화 배제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에 관한 다층분석. 「사회복지정책」, 36(3): 323-348.
- 민무숙·안상수·김이선·김금미·조영기·류정아. (2010). 「한국형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 개발 연구」. 사회통합위원회.
- 박성용. (2009). 지방행정조직에 있어 사회자본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강원도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상지대학교 박사논문.
- 박외병·정명희. (2012). 다문화 정책정향성과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475-496.
- 박우순. (2004). 사회자본의 낭만적 애정에 대한 비판적 견해. 「한국조직학회보」, 1(2): 81-119.
- 박찬웅. (1999). 신뢰의 위기와 사회적 자본. 「계간 사회비평」, 19(1): 33-64.
- 박통희. (2010). 대인신뢰에 대한 가치관과 단체참여의 영향 : 어떤 가치관과 단체참여가 사회적 자본을 배태시키나. 「한국행정학보」, 44(1): 67-97.

- 박혜숙. (2013). 대학생 대상 다문화 수용성 척도 타당성. 「교육과학연구」, 44(2): 219-248.
- 박희봉. (2005). 사회자본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방정부연구」, 8(4): 317-333.
- 박희봉. (2007). 사회자본과 거버넌스: 참여와 신뢰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 「국정관리연구」, 2(2): 60-77.
- 박희봉. (2010). 사회자본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한 중 일 3국민의 시민의식 분석. 「한국정책과학회보」, 14(4): 1-29.
- 박희봉·김명환. (2000). 지역사회 사회자본과 거버넌스 능력. 한국행정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0). 서울의 사회적 자본: 현황과 정책과제.
- 서울특별시청. (2012). 서울통계연보
- 손애리·이내영. (2012). 탈북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연구: 국가정체성과 다문화 수용성을 중심으로. 「아태연구」, 19(3): 5-34.
- 송건섭·이곤수. (2007). 지방정부의 시민접촉에 대한 사회자본의 영향. 「한국행정학보」, 41(1): 133-152.
- 송경재. (2006). 한국의 지역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 지방자치제 이후 지역별 변화와 특성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3(3): 133-164.
- 송미영. (2010). 한국의 다문화의식 : 다문화 수용성의 원인 분석. 「민족연구」, 41: 74-79.
- 안전행정부. (2011). 안전행정통계연보.
- 양계민. (2009). 한민족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0(4), 387-421.
- 오계택. (2007).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한국인 근로자의 인식. 「노동리뷰」, 11: 59-68.
- 오승은. (2012). 주민자치센터 활성화가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22(2): 65-90
- 원숙연. (2011). 외국인 및 외국인정책에 대한 인식의 지형분석: 서울시

- 25개 구(區)를 대상으로 한 탐색적 시도. 「국가정책연구」, 25(4): 27-55.
- 윤석춘. (2001). 한국의 사회자본: 연고집단. 한국사회학회 기타간행물. 101-109.
- 윤석상. (2011). 사회적 자본과 다문화 사회구축. 「글로벌교육연구」, 3(1): 95-114.
- 윤인진·송영호. (2009).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579-591.
- 윤인진·송영호. (2011).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통일문제연구」, 23(1): 143-192.
- 이숙중·김희경·최준규. (2008). 사회자본이 거버넌스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공무원과 시민단체 직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2(1): 149-170.
- 이숙중·최준규·유희정. (2008). 사회적 특성과 행위 변수가 사회 자본에 미치는 영향 : 종로구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2(4): 101-132.
- 이숙중·유희중. (2010). 개인의 사회자본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치학회보」, 44(4): 287-313.
- 이양수. (2006). 한국적 사회자본이 주민의 정치참여행태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연구」, 10(3): 25-43.
- 이인자·한세희·이희선. (2011). 사회자본이 교육성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사교육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0(1): 179-213.
- 이정주. (2008). 사회적 자본과 부패와의 관계에 대한 OECD 국가 간 비교연구 : 교량형 사회적 자본과 결속형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13(2): 35-52.
- 이준웅·김은미·문태준 (2005). 사회자본 형성의 커뮤니케이션 기초: 대중 매체 이용이 신뢰, 사회 연계망 활동 및 사회정치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49권 3호, 234~261.

- 이창순. (2005). 사회 연결망과 사회적 자본에서의 성차와 성불평등. 「사회과학연구」, 31(1): 157-173.
- 이현우·이지호·한영빈. (2011). 사회자본 특성이 지역주의에 미치는 영향 :결속형과 교량형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5(2): 149-171.
- 이현정·안재웅·이상우. (2013). 다문화 콘텐츠가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언론학보, 57(3): 34-57.
- 인태정·김희재 (2009). 국내 이주 외국인에 대한 부산·울산·경남지역 대학생 의식조사. 「아세아연구」, 52(2): 184-213.
- 임형백·소진광·임경수. (2012). 지방자치단체 다문화정책의 방향설정과 지표 개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4(1): 77-95.
- 장석준. (2012). 사회 자본이 지방정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 호혜성 규범과 교량형 결속형 연결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3(2): 279-303.
- 전기우·윤광재. (2011). 사회복지조직의 사회자본이 복지전담인력의 직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2(3): 313-343.
- 전성훈. (2010). 사회자본이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은평구 15개 자치회관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4(2): 63-92.
- 전오진. (2009). 공직사회의 사회자본이 부패에 미치는 영향 : 지방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회보」, 13(3): 1-22.
- 정광호. (2010). 사회자본과 지방정부 역량의 연관성 탐색: 재정역량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4): 333-374.
- 정명주. (2012).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다문화 정책 실태 분석. 「한국학연구」, 41: 87-135.
- 정명희. (2010). 한국사회의 문화 간 감수성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e-비즈니스 연구」, 11(4): 291-310.

- 주용환. (2010). 지역 사회자본 형성과 지방정부 효능감 관계 연구 - 서울시 4개 자치구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4(1): 283-306.
- 최기조. (2008). 사회적 자본의 지역발전 기여도에 대한 실증연구. 「한국행정연구」, 17(3): 249-277.
- 최종렬. (2008). “신뢰와 호혜성의 통합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자본”. 류석춘·장미혜·배영. (2008). <한국의 사회자본: 역사와 현실>. 백산출판사. 제 1장, 17-72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 한세희·김연희·이희선. (2010). 사회자본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국행정학보」, 44(3): 37-59.
- 홍기원. (2009). 한국 다문화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한국공공관리학보」, 23(3): 169-189.
- 홍영란. (2009). 사회적 자본 지표 개발 및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연구원.
- 황영호·문유진·황우택. (2012). 트위터의 이용 동기가 이용자의 사회적 자본과 이용 만족에 미치는 영향 : 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6(2): 23-50.
- 황정미. (2010).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분석. 「아세아연구」, 53(4): 152-184.
- 황정미·김이선·이명진·최현·이동주. (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외문헌

- Berry, J. W., & Kalin, R. (1995). "Multicultural and Ethnic Attitudes in Canada".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27: 310-320.
- Bogardus, E. S. (1925). "Measuring Social Distance". *Journal of Applied Sociology*, 9(2): 299-308.
- Boix, C. & Posner, D. N. (1998). "Social Capital: Explaining Its Origins and Effects on Government Performanc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8: 686-694.
- Bourdieu, P. (2008). "15 The Forms of Capital". *Readings in Economic Sociology*, 4: 280. 유석춘·장미혜·정병은·배영. (2003).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그린.
- Castles, S. & Miller, M. J. (1998).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New York - London: Guildford Press.
- Cigler, A. & Joslyn, M. R. (2002). "The Extensiveness of Group Membership and Social Capital: The Impact on Political Tolerance Attitude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5(1): 7-25.
- Coffe, H. & Geys, B. (2007). "Toward an Empirical Characterization Of Bridging and Bonding Social Capital".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6(1): 121-139.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5-120. 유석춘·장미혜·정병은·배영. (2003).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그린.
- Cote, R. R. & Erickson, B. H. (2009). "Untangling the Roots of Tolerance: How Forms of Social Capital Shape Attitudes toward Ethnic Minorities and Immigrants". *American*

- Behavioral Scientist*, 52(12): 1664–1689.
- EUMC. (2005). Majorities' Attitude Toward Minorities: Key Findings from the Eurobarometer and the European Social Survey. http://www.fra.europa.eu/fraWebsite/products/publications_reports/pub_ts_attitudesmigrants_en.htm
-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The Free Press.
- Granovetter, M. S.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6): 1360.
- Hero, R. E. (2003). "Social Capital and Racial Inequality in America". *Perspective on Politics*, 1(1): 113–122.
- Herreros, F. & Criado, H. (2009). "Social Trust, Social Capital and Perceptions of Immigration". *Political Studies*, 57(2): 337–355.
- Hjerm, M. (2005). "What the Future May Bring: Xenophobia among Swedish Adolescents". *Acta Sociologica*, 48(4): 292–307.
- Howe, P., Everitt, J. & Desserud, D. (2006). "Social Capital and Ethnic Harmony: Evidence from the New Brunswick Case". *Canadian Ethnic Studies*, 38 (3): 37 - 57
- Iglic, H. (2010). "Voluntary Associations and Tolerance: An Ambiguous Relationship".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3(5): 717–736.
- Ikeda, K. & Kobayashi, T. (2009). Making Democracy Work via the Functioning of Heterogeneous Personal Networks: An empirical Analysis Based on a Japanese Election Study. In R. M. Hsung, N. Lin, & R. Breiger. *Contexts of Social Capital: Social Networks in Markets, Communities and Families*. 72–90. London: Routledge.
- Knack, S. (2002). "Social Capital and the Quality of Government: Evidence from the Stat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 science*, 46(4): 772-785.
- Kobayashi, T. (2010). "Bridging Social Capital in Online Communities: Heterogeneity and Social Tolerance of Online Game Players in Japa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36: 546-569.
- Lin, N. (1999a). "Building a Network Theory of Social Capital". *Connections*, 22(1): 28-51.
- Lin, N. (1999b). "Social Networks and Status Attainment". *Annual Review of Sociology*, 25: 467-487.
- Paxton, P. (2004). *Who Do You Trust? A Multilevel Model of Generalized Trust in Thirty-one Countrie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San Francisco.
- Pickering, P. M. (2006). "Generating Social Capital for Bridging Ethnic Divisions in the Balkans: Case Studies of Two Bosnaic Cities". *Ethnic and Racial Studies*, 29(1): 79-103.
- Portes, A.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1-24.
- Putnam, R. D.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3: 65-78
-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 Putnam, R. D. (2001) "Social Capital. Measurement and Consequences ". *Canadian Journal of Policy Research*, 2(1): 41 - 51.
- Putnam, R. D., Leonardi, R., & Nanetti, R.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유석춘·장미혜·정병은·배영. (2003).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그린.
- Rice, T. W. (2001). "Social Capital and Government Performance in Iowa Communities". *Journal of Urban Affairs*, 23(3-4):

375-389.

- Stolle, D. & Rochon, T. R. (2001). Are All Associations Alike? In R. Edwards, M. W. Foley, & M. Diani(Eds.), *Beyond Tocqueville: Civil Society and the Social Capital Debate in Comparative Perspective*. 143-156. Hanover: Tufts University Press.
- Travits, M. (2006). "Making Democracy Work More? Exploring the Linkage between Social Capital and Government Performance".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9: 211-225.
- Tu Weiming. (2006). 「문명들의 대화」, 김태성(역). 서울: 휴머니스트.
- Uslaner, E. M. (1999). "Democracy and Social capital". *Democracy and Trust*, 121-150.
- Uslaner, E. M. (2002). *The Moral Foundations of Tru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Uslaner, E. M. & Conley, R. S. (2003). "Civic Engagement and Particularized trust: The Ties that Bind People to Their Ethnic Communities". *American Politics Research*, 31(4): 331-360.
- Varshney, A. (2001). "Ethnic Conflict and Civil Society". *World Politics*, 53(1): 362-298.
- Warren, M. E. (2001). *Democracy and Associ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illiams, D. (2006). "On and off the Net: Scales for Social Capital in an Online Era".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1: 593~628.

Abstract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Hyeseon Kim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Social capital is consisted of trust, reciprocity norm, bridging network, and bonding network.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s composed of social distance, need of policy for multiculturalism, and perceived threat. This study was inspired by a question about the functions of social capital: will the functions of social capital that were confirmed by the previous studies be applicable to external group of foreigners? This study set up a hypothesis that trust, reciprocity norm, and bridging network place positive effect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n the other hand, bonding network affect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negatively. Data used for the analysis is the 2011 Seoul Survey.

Analysis of the basic statistics shows that Seoul has a low level of social capital wherea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scored

normal level. Thus, individualized society, as named by Putnam, well depicts the current condition of Seoul.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dicates that social capital's relationship with multicultural acceptability, social trust, reciprocity norm, and bridging network affect multicultural acceptability positively, but its relationship with governmental trust and bonding network affect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negatively.

These statics show the followings. First, social glue, one of the social capital's important functions, could be applied to embrace not only internal but external group. In other words, people with deep trust in the society interact actively with foreigners and think multicultural society favorable. Second, reciprocity also facilitate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his study measures the level of reciprocity in terms of the level of participation in volunteer work. Participation in volunteer works has positive effects on one's attitude towards multiculturalism because such experience enhances social learning in public issues. Third, through diverse and heterogeneous networks, people enhance their understanding of other people. Furthermore, people better interact with foreigners and perceive them positively due to the network's attribute that buttresses horizontal relationship. Finally, bonding network which considers cohesion and solidarity important reinforces negative attitudes toward foreigners.

Keywords : Social capital,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rust, Reciprocity norm, Network, Social distance

Student number: 2012-21928